KIRA 2012 04 WWW.KIRA.or.kr

칼 럼 공생발전에서 길을 찾자 시 론 녹색건축물의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 건축… 그리고 첫사랑

HOREAN ARCHITECT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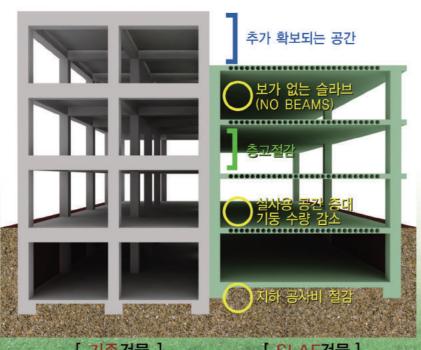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P조기술사사무소/벤쳐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 (054)278-2883 TEL (02)555-2055(代) FAX (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 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TEL: 02)333-4448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E-mail: sky23487@hanmail.net ■ FAX: 054)973-0067







주방설비시스템, 주방천정환기시스템 설계전문 Korea Kitchen Design



Innovative Kitchen Design, Dynamic Food Service Design and Ventilated Ceiling System

(주)코리아키친디자인은 보다 전문화되고 선진화된 주방설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첨단 설계프로그램 및 전문 해외 컨설팅사와 제휴를 통한 Internation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고품격 주방설비 및 주방천정환기시스템 천정을 필요로 하는 호텔, 리조트, 연회장, 레스토랑, 병원, 단체급식, 교육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방 설비시스템을 제공해드립니다.

Kitchen Design & Planning

- 주방설비계획 및 프로그래밍(2D/3D/렌더링)
- 주방장비사양 및 설비도면, 시방 제작
- 건축,설비,인테리어 코디작업 및 섹션뷰
- 해외전문컨설팅사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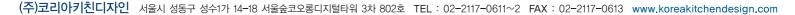
Kitchen Operations

- HACCP진행절차개발
- 주방장비사용프로그램
- 친환경설계 및 에너지평가프로그램

Kitchen Ventilated Ceiling System

• 선진형 주방천정환기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주방시스템 구현







2012년 5월 31일

건축사 자격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www.kira.or.kr

기존 제도

예비시험 ▶ 경력관리 ▶ 자격시험 ▶ 자격취득

※ 학력 실무경력요건이 건축에 관한 전문성 부족해도 단기간 기계적 학습을 통해 자격취득가능

변경 제도

자격시험

실무교육

실무수련 제도 신설

3년 이상 건축사 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실무수련 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실무수련 대상자

- 건축학인증 학위과정 5년제 졸업자 및 8학기 이상 이수자
- 건축대학원: 건축전공 학사인 경우 2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비전공 학사인 경우 4학기 이상 이수자

자격시험제도 변경

교육이수 • 예비시험 • 경력관리 • 자격시험

변 경

교육이수 > 실무수련 > 자격시험 ※현행 건축사예비시험: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 ※현 예비시험 합격자: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전형실시

건축사자격 등록제도 신설

건축사업무를수행하려면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자격을 등록 해야함

건축사업무수행: 건축사업무신고 (지자체)

건축사업무수행: 건축사자격을 등록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업수행: 건축사자격등록 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소속건축사: 건축사업무수행이 가능하나 협회에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모든 건축사
-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건축사도 2013. 5. 30까지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 신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사항으로 5년 내 60시간 이수

실무교육 실시기관

▶ 대한건축사현회

실무교육 종류

- ▶ 윤리교육 ▶ 전문교육
- ▶ 자기계발
- 실무교육 방법
- ▶ 진체교육
- ▶ 온라인교육
- ▶ 활동 참여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제도 신설

건축사자격 등록 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5년) 건축사 자격을 갱신등록









brother.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LC73계열



Catalogue				
是 写	Cyan	Magenta	Yellow	Black
River	LC73C	LC73M	LC73Y	LC73BK
O.V.	600매	600매	600매	600매
	LC77XL계열			
HER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LC77XL-M	LC77XL-Y	LC77XL-BK
1	1200미H	1200매	1200매	2400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2 April 04

COVER STORY



건축사 업무의 하나인 리모델링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그리고 건축사의 관심과 애착을 기대해 본다.

표지사진 :

본지 회원작품 중 〈한국기독교장로회 성동교회/이인규 -아키포럼이오가〉의 리모델링을 고려한 실내 투시도

 발
 행
 인
 강성익

 편집인(편집국장)
 조충기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문지은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98~9 인 터 넷 www.kira.or.kr

 다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샠
 현진크리에이티브 02_2276_6341∼3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Kang, Sung IkEditorZo, Chung-gi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 Moon, Ji-eu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I-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98~9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2 칼럼 COLUMN

공생발전에서 길을 찾자

Let's find the answer with symbiotic growth

013 시론 FOCUS

녹색건축물의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

The Convergence of Design and Technology for Green Building

건축… 그리고 첫사랑 Architecture… and First Love 유대근

015 만평 CARTOON

곽희수

016 회원작품 WORKS

한국기독교장로회 성동교회 SEONGDONG PRESBYTERIAN CHURCH _이인규 I 아키포램이오가 건축사사무소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

WOORIMAUM COMMUNITY WELFARE CENTER - 김수훤 · 박병욱 I (주)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우 남 재 牛南齋

WOO NAM JAI

_김효만 | 이로재김효만 건축사사무소







Contents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2년 04월호 통권 516호

모켄펜션

THE PENSION_MOKEN _ 곽희수 I (주)이템 건축사사무소

고양실내체육관

GOYANG INDOOR SPORTS ARENA (AERO DOME) _ 안길원 I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046 설계경기 COMPETITION

대전문화예술센터 DAEJEON CULTURE & ART CENTER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첨단생체소재연구센터 UNIST Advanced Biomaterial Research Center

영등포 제2구민체육센터 YEONGDEUNGPO 2nd SPORTS CENTER

056 건축사 생존병법 ARCHITECT'S SURVIVAL STRATEGY

건설기술 관리법의 전면개정(안)에 대한 근본적 의문 Fundamental Doubt for Amendment (Plan) of Construction Technology Control Act

059 INTERVIEW / SKETCH WORK

건축사는 '큰 스승(師)'이다! Architect is 'the preceptor'.

067 연재 SERIAL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 4/5 Toward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072 기고 FEATURE

일본 총합지구환경학연구소(RIHN)와 메가시티 프로젝트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y and nature & Megacties and the Global Environment

078 보고서 REPORT

2012 ALACE Convention 참가 보고서 2012 ALACE Convention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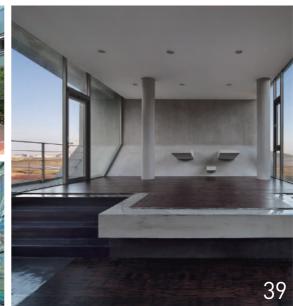
083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권은미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우리협회는 지난달 강원도건축사회를 끝으로 모든 총회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 회원의 기대와 협회의 각오도 현재 처한 우리 어려움이 되고 있는 시장 정상화와 양 극화 해소가 경제적 안정으로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한마음의 장이자 축제였기를 상 상해본다.

국가에서도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유한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정 공평을 국가와 정치적 본령으로 삼는다. 우리 경제 발전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발전의 공정성, 생태계적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경제적 기회를 강화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게 하였다.

2011년 허가 면적 현황을 보면 총 허가 동수는 큰 등락 없이 약간의 수평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경기 체감 같은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업무 분배의 문제, 새로 운 시장에 대응할 전략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정 시장가치의 붕괴이다. 설계 업무의 보수대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물로 흔들리고 인력의 급격한 확대와 이로 인한 업무량의 분배에 서 무한 경쟁으로 내몰려 창작물로 인정받기보다 는 저가요구 유혹에 20년 넘게 허가 행정 절차를 위한 수단비용 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아직도 경쟁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며, 행동 양심의 윤 리적 문제이다.

공생발전에서 길을 찾자

Let's find the answer with symbiotic growth

건축설계 시장의 위기 진단

우리 건축계도 시장의 심각성이 한계에 도달하여 설계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고, 삶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은, 사람은 많고 일거리는 없고 일을 해도 제대로 대가를 못 받는 현재 우리 설계시장의 실 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첫째, 건축사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초래 했다고 볼 수 있다. 예상되는 사회 변화와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 양극화에 따른 주 거의 변화와 건축물의 수요에 대비한 장기정책이 없이 규제개혁과 시장원리만을 강조하여 90년대 중반, 일시에 30년간 배출한 수보다 많은 건축사 를 일시적으로 시장에 내몰았다. 이 시기부터 수 요 공급과 내부자율 조정이 상실되었다.

둘째, 지난 10년간의 업무량을 보면, 양의 문제 이기 보다 인력수급의 문제였고,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제사업은 공생발전의 시작이다

우리협회는 2011년 1월 24일부터 공제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업무의 보증 과 고의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법적 환경은 쌍방 간의 책임과 권리를 담보 할 수 있는 공정거래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통제 없는 제 살 깎기 경쟁은 무료 계획 설계, 무한업무 서비스, 무대책 저가수주로 3무의 설계시장 환경을 만들어 업무가 하향평준화되는 문제를 낳았다.

수준 높은 도서를 생산하여 보증하고 손해배상 공제의 손해율을 낮추는 것은 설계시장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운영의 합리화는 회원을 위한 설계·감리 개선 향상과 경제적 이익으로 환류 될것이다.

이와 같이 공제사업은 설계시장 공정거래의 길을 열고, 상실된 동료 간의 윤리성 회복으로 이어져, 건축문화 발전과 회원 모두의 공생발전으로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圖



이종정, KIRA | Lee, Jong-jeong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 회 위원장

약력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외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에스와이 종합건 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공제사업위원장과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말이면 주로 헤이리 예술마을에 지어놓은 갤러 리에서 보낸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멋진 건물이지만 기능에서 아 쉬움이 많다. 집집이 하나의 작품인 건물들의 속내 는 살아본 사람들만 안다.

지을 당시에는(2006년) 녹색건축물에 대한 개념 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을때라 지금 다시 짓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잠시 생각해본다. 액티브와 패시브의 기능이 정확히 들어간 멋진 녹색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전문으로 25년이란 시간을 보낸 환경을 전공한 전문가이지만 기후변화와 온실 가스에 대한 실감을 느낀 것은 오래지 않다. 심각성 을 느끼고 준비를 시작한지는 7년 전이고 본격적으 로 준비한 것은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전 색건축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제3차 산업혁명은 '녹색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 및 생태 효율적 기술 개발이 요구 되고 정부에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자립과 신성 장동력 창출 그리고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를 위한 온실가스저감 비전과 기술혁신 과제를 정하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이며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라니 위기는 확실하다. 배출량의 분포를 보면 에너지 분 야에서 건축물 배출량은 11.2%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 과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녹색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의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

The Convergence of Design and Technology for Green Building

엔 정부도 기업들도 기후변화협약이나 온실가스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는 이산화탄 소 45%와 매탄가스 53%, 그 외 수소 · 질소 2%로 구 성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발생가스 중 매탄가 스만을 회수하여 발전기를 놓고 전기를 생산하는 플 랜트가 지금도 김포매립지에서 가동 중이다. 12년 전, 계획할 때 만해도 온실가스 저감 목적보다는 매 탄회수 후 발전이었으니까 말이다.

환경부에서는 2007년 8월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₂ 온실가스 사업단이 만들어져 본격적인 R&D가 시작되었다.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도 국가과 제에 참여하여 여러가지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었 으며 생태 연못의 기능 중에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원천을 찾아 연구, 개발에 성공하여 이제는 현장에 적용되는 실적을 가졌다.

'그린비지니스의 미래지도'라는 책을 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리하면서 생태마을과 녹

녹색건축물의 주목적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잠재성은 디자인과 기술을 향상시킬수록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융합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건축사, 기술사, 전문가들의 우수성이 돋보일 수 있는 우리들만의 융합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매년 GDP의 2%에 해당 되는 총 107조원의 녹색 예산이 배정되어 실천되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대비 7.6%가 증가된 16조원의 정부 R&D 투자 규모를 결정했으며 특히 녹색기술 및 기술투자를 확 대하였고 유망기술분야 및 중소기업 R&D에 대한 지 원도 강화하였다고 한다.

녹색건축물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들도 적극적 참 여가 요구되어지는 항목이다.

보여지는 건축물의 미관에 더하여 환경친화적 요 소가 접목된 녹색건축물을 지어, 건축물에서 발생되 는 온실가스량의 직접적 감축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崮



이미란 | Lee, Mi-ran (주)대성그린테크 대표이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환경공학과에서 석사학

원 환경공학과에서 공학박사를 받았고, 기술 사이다. 한국기술사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한 국화경자워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심의 기 술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환경기술상(환 경부장관상), 과학기술포장상 등을 수상했다.



FOCUS

요즘 국내 영화관에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는 영화는 단연 '건축학 개론'이다. 건축을 매개로 첫 사랑을 차근차근 풀어낸 이 영화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라는 포스터의 문구로 시 선을 잡는다.

 \bigcirc

어쩌면… 사랑할 수 있을까?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생기 넘치지만 숫기 없던 스무 살, 건축학과 승민은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처음 만

난 음대생 서연에게 반한다.

함께 숙제를 하게 되면서 차츰 마음을 열고 친해지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툰 순진한 승민은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고백을 마음 속에 품은 채 작은 오해로 인해 서연과 떨어지게 된다.

건축학개론 수업의 교수님 말씀. 과제를 하기위해 정릉 골목을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 시다(요즘은 도우미라고…) 뛰는 후배에게 자장면 사주는 선배의 모습. 그 기억은 현실의 주인공 모습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무실 책상에서 쭈그려 자는 모습, 항상 피곤에 쩔어있는 표정과 PT할 때의 모습들.

직장 동료와의 대화. 그리고 쓸데없는 프로젝트에 엮일까 뒤로 빼다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건축주를 만났을 때 금전따위는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삘 받아 미친 듯이 일하는 건축인의 모습 등에서 현실과 괴리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중심에 '공간'과 '집'이 있다. 정릉의 골목 공간과 개포동까지의 버스여행에서

건축… 그리고 첫사랑

Architecture... and First Love

어쩌면 다시…사랑할 수 있을까? 15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났다

서른 다섯의 건축사가 된 승민 앞에 15년 만에 불쑥 나타난 서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승민에게 서연은 자신을 위한 집을 설계해달라고 하다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작품으로 서연의 집을 짓게 된 승민, 함께 집을 완성해 가는 동안 어쩌면 사랑이었을지 모를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한 이용주 감독은 영화를 업으로 삼기 전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일했다고 한다. 2003년 작성한 시나리오를 여러 번 다시 쓰며 10년 만에 발표한 이 작품을 통해 건 축의 기억을 털어내고 영화인으로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의 영화에는 건축의 기억이 너무 많다.

펼쳐지는 서울의 공간들. 승민의 집과 정릉의 빈집, 서연의 제주도 집. 개론 수업의 과제인 '집'을 첫사랑에게 선물하려한 건축학도와 그 선물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15년간 보관하며 그에게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의 사랑이 하나하나의 공간을 완성해 나가면서 애틋하고 아련하게 피어난다.

건축을 업으로 하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 어느날 불쑥 찾아와 삶과 사랑을 담아 줄 필요한 공간을 요구하고 그의 꿈을 이야기할 때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 꿈을 담을 공간을 상상할 수 있을런지. 치근차근 그 사람의 말에 귀기울이며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그 사람만의 공간을만들어 선물할 수 있을런지. 우리는 모두 그 작업의 매력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첫사랑의 기억처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와 서툴고 애틋한 첫사랑을 시작하고 있진 않은지? ៉

9

유대근, KIRA | You, Dae-geun (주)유용준 건축사사무소 약력

유대근 건축사는 홍익대학 교 건축공학 박사를 수료했으며, 현재 동대학의 겸임교수로 후학들을 지도 중이다. 건축사이며, 건축사공기술사이다.





나는 건축가다?





곽희수 | idemm@chol.com

- 홍익대학교 졸업 이템도시건축 대표 홍익대학교 튜터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성동교회

SEONGDONG PRESBYTERIAN CHURCH

건축주 |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유지재단

설계자 | 이인규_KIRA | 아키포럼이오가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아키포럼이오가 건축사사무소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동양구조엔지니어링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태창전기설계사무소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건사설비설계사무소

시공사 | 신원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82번지

대지면적(Site Area) | 3,065.6㎡

건축면적(Building Area) | 958.68㎡

연면적(Gross Floor Area) | 2 920 5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1.27%

용적률(Floor Area Ratio) | 92.85%

규모(Building Scope) | B1-4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

마감재 | 실외_노출콘크리트, 징크판, 베이스패널, 화강석물갈기 실내_벽체 타공흡음판, 비닐페인트 / 천정-흡음뿜칠, 흡음텍스 바닥-화강석물갈기, 인조대리석, 비닐타일

사진(Photographs) | Jung, Byung-hyup

Location | 782, Seonghwa-dong, Heungdeok-gu, Cheongju-si, Korea Structure | R.C, S.C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concrete, Zinc

Compressed cement panel, Low-e glass

Structural Engineer | Dong-yang Structural Engineers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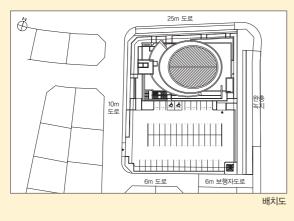
HVAC Engineer | Purun HVAC Eng.

Electrical Engineer | Kuem-cheon Eng.

General Contractor | Shin-won Construction Co., Ltd.

Client | SEONGDONG PRESBYTERIAN CHURCH

Project team | Archi-Forum EOGA architects & partners





본 프로젝트는 같은 지역 내에서 105년 역사를 가진 교회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행된 지명현상공모에 참여하고, 당선되므로서 진행하게 되었다. 대지는 사방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내의 요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장소적 인지성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각각의 면이 모두 정면성을 갖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내부기능을 적극적으로 외부 입면에 반영하는 형태로 해결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아파트로 둘러싸인 주변의 경관 속에서 4층 12m이하로 규정된 높이제한으로 인하여 다소 외소하게 보일 수 있는 교회당에 존재감을 부여하는 것 또한 건축계획의 중점사항으로 작용하였다. 대지 내에서 교회당의 배치는 주차장 및 차후 증축을 고려하여 북측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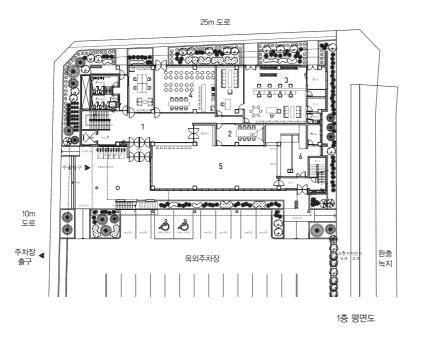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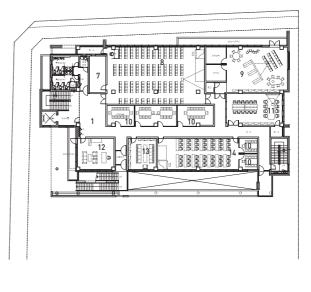
치우치게 계획하였고, 첫 번째 고민의 대상인 주출입구는 대로변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진입보다는 서측의 주택가에서 친근하게 접근하는 동선으로 계획하였으며, 남측과 북측에는 부출입구를 두었다. 평면의 주요기능은 1층에 친교, 봉사 및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식당, 사무실, 쉼터를 두었고, 2층엔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소예배실, 교육실을 두었으며, 3층과 4층에는 대예배실과 유아실을 두어 예배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1, 2층 평면의 형태는 합리적 기능을 위하여 직방형의 평면으로 계획하였고, 3, 4층 예배당의 형태는 한 개의 타원을 또 다른 타원이 감싸는 형태로 하여 교회당의 주된 이미지가 되도록 하였다. 외부의

입면 형태는 내부의 주요기능이 반영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하였으며, 주차장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남측면에 주된 정면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측입면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 는 1층에서 4층까지 이어지는 옥외계단실과 저층부의 입면을 분절 해주고 옥외 휴게공간을 제공해주는 기둥과 브릿지 형상으로 구성 하였다. 서측 주출입공간은 진입마당과 옥외계단을 지붕처마가 감 싸며 출입구의 상징적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북측과 동측면은 주변 아파트와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경시설과 어 우러진 입면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교회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농촌 풍경에서 도시적 풍경으로 변화된 지금의 지역적 상황 속에서 새롭 게 지역봉사를 위한 장소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2층 평면도

01_ 홀 02_ 소모임실 03_ 사무실

04_ 쉼터 05_ 식당 06 주방 07_ 가운실 08_ 소예배실 09 어린이부실

10_ 교육실 11_ 청년부실 12_ 목양실 13_ 당회실 14_ 중고등부실

This project starts after winning the design competition of new construction of an 105-year church in Cheongju. A new church is recognized very well, because it is placed in the important Housing Site Development District and its all directions adjoin a road.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each side to have frontality. But this problem is solved by applying its internal function to its front elevation. And how to increase its presence is also important. Because it is surrounded by many apartments and limited as a 4-story building(under 12meters).

Placement of a church makes northing, considering its parking lot and later extension. Its main entrance is planned in order that people can approach friendly from western residential area, not from principal roads directly. And two other entrances are in south and north. A dining room, an office, and a lounge are on the first floor, and they are in charge of forming a friendship, service, and management. On the second floor, there are a chapel and an education room in charge of believer education.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 there are a main chapel and a room for mother and children, respectively. They are in charge of church divine service. The shape of 1st and 2nd floor is rectangular for their rational function. The shape of a chapel on the 3rd and 4th floor is elliptical, surrounded by another ellipse, and it makes the main image of church. And its elevation is planned, considering its internal function. The main frontality is set in south, considering its accessibility from a parking lot. The main elements of southern elevation are exterior stairway from the first through 4th floor, and pillars and bridges, which divide lower part and offer an outside lounge. Western main entrance is planned in order that the eaves cover western exterior stairway and the entrance yard, so it makes a symbolic image of an entrance. The northen and eastern ones are planned in order to get joined together with landscaping, considering nearby apartments and principal roads. This church is expected to be a memorable place for community service in the local conditions, which have changed from rural area to urban on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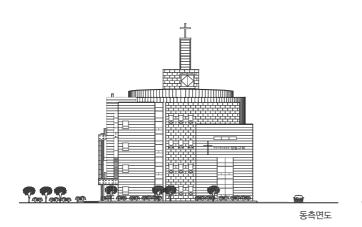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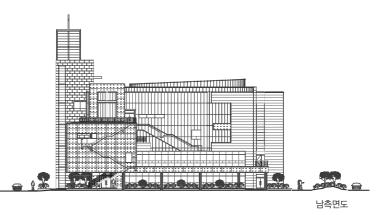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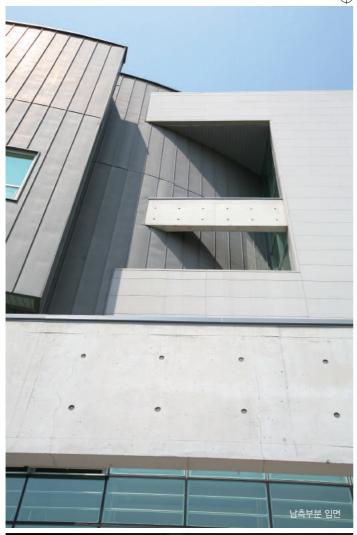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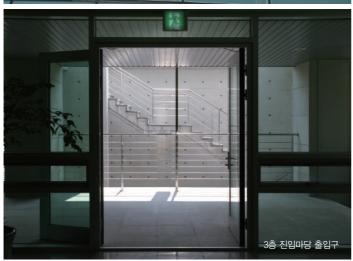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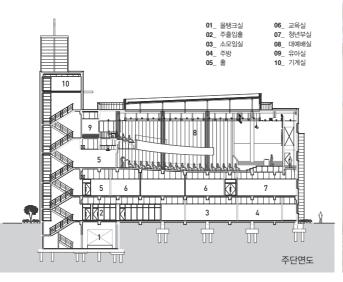






(







WORKS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

WOORIMAUM COMMUNITY WELFARE CENTER

건축주 | 성남시

설계자 | 김수훤 · 박병욱_KIRA | (주)나우통인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서종기, 신용배, 김세일, 김인엽, 이재명 이윤정, 배정은, 주창환, 최윤실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아이스트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진전기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삼신설비

- 토목분야 : (주)나우엔지니어링

시공사 | KCC 건설(주)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0-1 외

대지면적(Site Area) | 6,165.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576.18㎡

연면적(Gross Floor Area) | 15 494 2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8%

용적률(Floor Area Ratio) | 116.65%

규모(Building Scope) | B2-3F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구조

마감재 | T24 로이복층유리, 아연패널, 알루미늄복합패널

Location | 170-1, Yatap-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 S.R.C

Finishing Materials | Zinc Panel, Aluminum Composite Panel, THK24-E Pair Glass

Structural Engineer | I'ST Structure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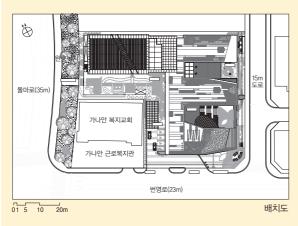
HVAC Engineer | SHAMSHIN ENGINEERS.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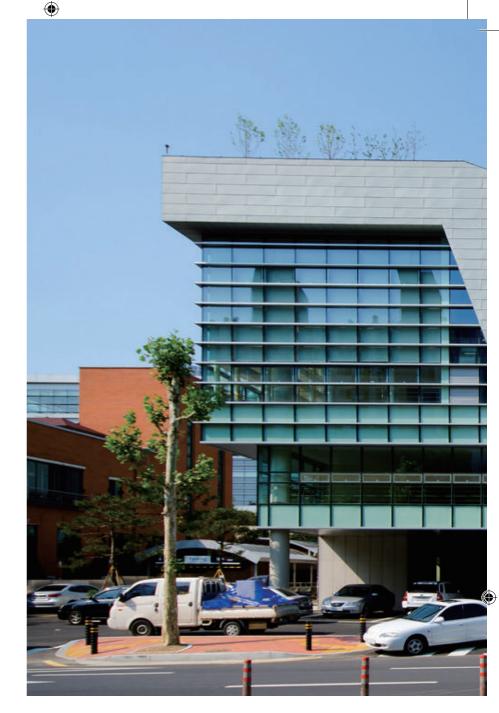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JIN Electrical Engineering

 ${\tt General\ Contractor\ |\ KCC\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Client | Seongnam -City

Project team | Seo, Jong-ki / Shin, Yong-bae / Kim, Se-il / Kim, In-yeob Lee, Jae-myung / Lee, Yun-jung / Bae, Jung-eun Ju, Chang-hwan / Choi, Yun-sil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은 도시, 자연,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통해 성남시에 또 하나의 미학을 제시하는 도시공간의 생성이라는 잠재성을 가진다. 우선 도시의 구조와 흐름에 순응하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본적 기능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도서관, 대강당, 도시 광장 등의 시설을 설치, 개방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열린 종합복지관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외부 녹지흐름을 대지내로 받아들이는 입체적 조경계획으로 아 트리움 및 옥상조경을 설치하였고 남향채광을 극대화시켜 자연의 빛이 함께하는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판단 및 지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쉽고 명쾌한 동 선계획으로 전 층에 연결되는 경사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이 가능한 동시에 내부시설의 가변성확보 및 기능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 도록 계획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끝으로 복지문화의 미래를 표현하는 역동적 이미지를 구현하여 갤러리와 같은 디자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며 성남시의 모든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자주 이용되는 지역 내 대표 열린종합복지관으로 성장해가길 빌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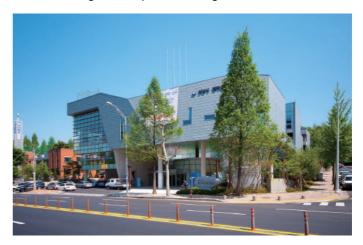




Woorimaum community welfare center has potential for creation of city space which can show another aesthetics in Seongnamsi through balance with city, nature and community. First of all, we not only planed open space and square to communize with neighbors together but also tried to satisfy basic functions of disabled welfare center with adapting urban structure. we aimed to Minimize complaints and create Welfare culture. therefore, we consequently tried to make a open-welfare center which can use all of people through maximize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libraries, auditorium and such welfare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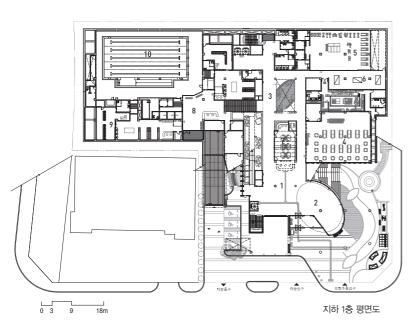
By designing a three-dimensional landscape plan, we installed an atrium and a roof garden to accept the green flow from the outside into the site, and maximized sides of the building facing south to create a comfortable interior space by saturating natural light. Also, we planned a ramp that connects all levels and functions organically to make access safe, easy and the interior space variable at the same time. We expect that this center will born again as landmark of community through embodiment of dynamic image expressing the future of welfare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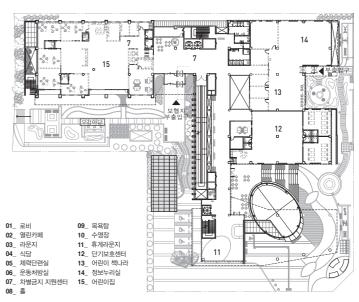
Finally, we hope that Woorimaum community welfare center becomes an open space which will be loved and used often by the locals and grow to represent Seongnam-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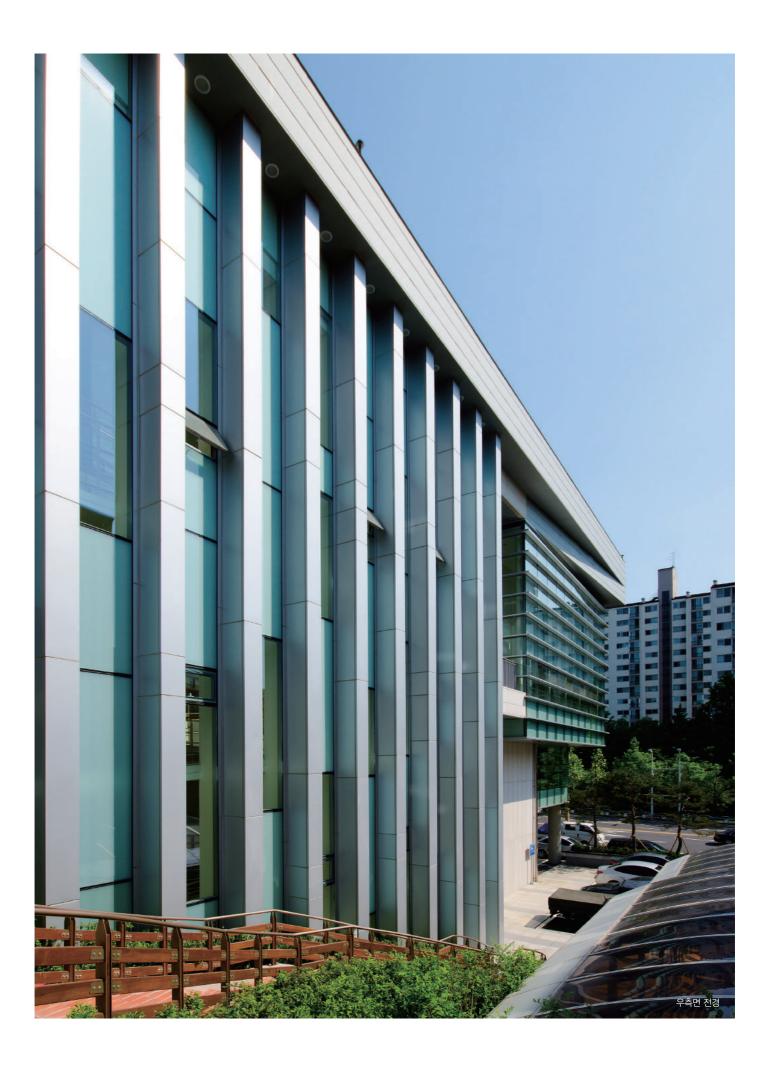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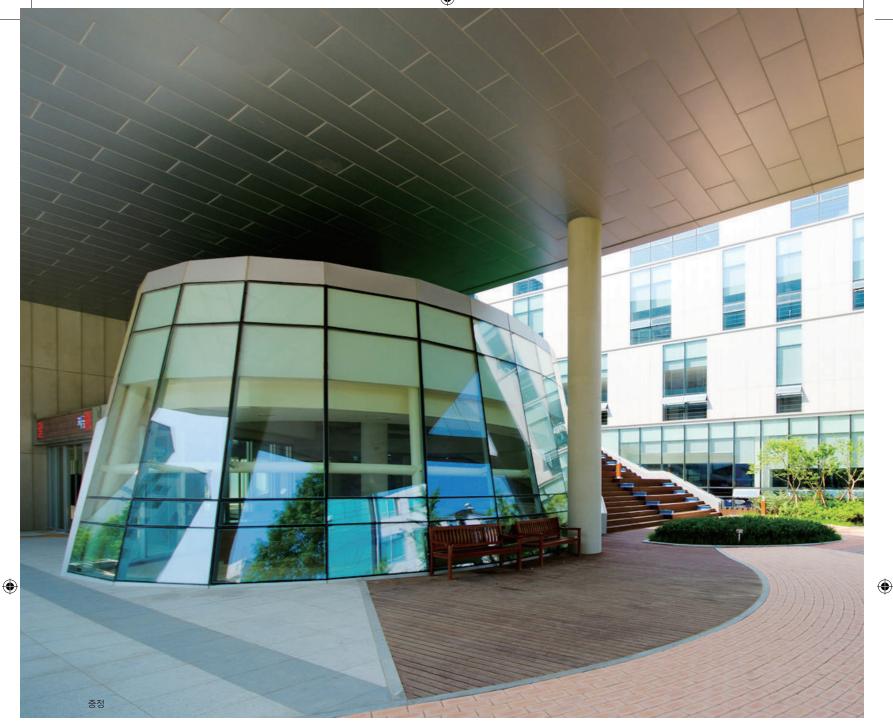
024 WORKS _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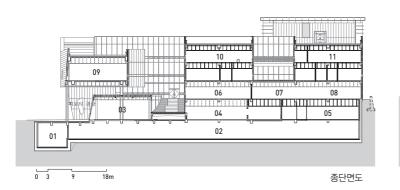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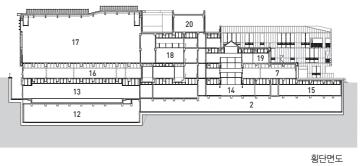












01_ 전기실 02_ 주차장 03_ 열린카페 04_ 식당/주방 05_ 체력단련실

06_ 주・단기 보호센터 07_ 어린이책나라 08_ 정보누리실 09_ 한마음 홀 10_ 종합사무소

11_ 직업훈련소 12_ 수영장기계실 13_ 수영장 14_ 라운지 15_ 운동처방실

16_ 어린이집 17_ 체육관 18_ 홀 19_ 대기실 20_ 공조실

026 WORKS _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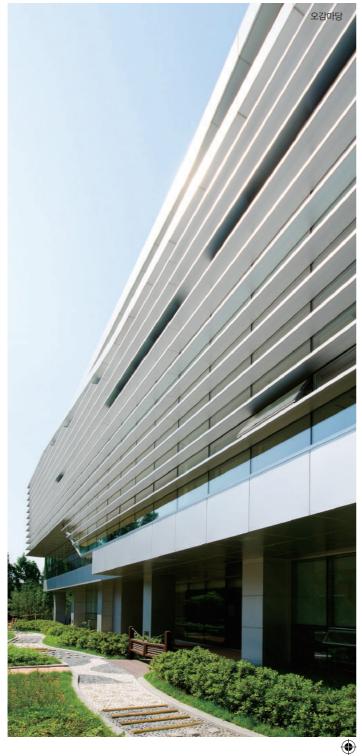


남측면도



북측면도







WORKS

우남재牛南齋

WOO NAM JAI

건축주 | 비공개

설계자 | 김효만_KIRA | 이로재김효만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정수미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모아구조 오성영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없음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없음

- 토목분야 : 없음

시공사 | 인지

대지위치 | 경기도 과천

대지면적(Site Area) | 883㎡

건축면적(Building Area) | 375.24㎡

연면적(Gross Floor Area) | 624.6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2.50%

용적률(Floor Area Ratio) | 61.55%

규모(Building Scope) | B1-3F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마감재 | 실외_알루미늄판, 노출콘크리트 실내_메탈시트, 색락카, 목재후로링

사진(Photographs) | Kim, Jong-oh

Location | Guachun, Gyeounggi-do, Korea

Structure | Concrete rahmen

Finishing Materials | Aluminum panel, Exposed mass concrete, Metal sheet

Structural Engineer | MOA. Sung Yeong 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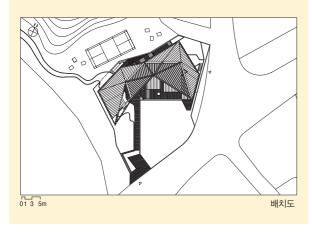
HVAC Engineer | not exist

Electrical Engineer | not exist

General Contractor | INZI

Client I not disclosed

Project team | Jung, Su-mi





자연녹지지역인 도시의 자연공원에 접해있는 이 대지는 도심속의 자연이라는 현대도 시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욕망인 주거와 휴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이상적 장소이다.

지극히 불규칙한 다각의 형태를 가진 대지 형태속에서 최대한의 남향정원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은 대지 북단의 불규칙한 형태의 경계선을 따라 경계선 형태로 배치되게 됨으로써, 다각형의 대지형태 그리고 일조권사선제한의 법정규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건축물은 다면체의 비정형 매스가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주변자연환경의 형태적 맥락과 동질적 조화를 구성하려는 조형적 설계의도와 자연스럽게 일치하게 된다.

이로써 이집의 외부공간은 원경과 연장된 안마당. 뒷산과 연장된 뒷마당. 지하마당. 휴게마당이 순환하는 외부공간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작은 집무공간과 주택을 서로 분리배치함으로써, 그사이에 발생한 중성적 외부공간은 진입의 과정공간이며 안마당과 뒷마당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소로서, 동시에 지붕이 있는 휴게마당으로 기능한다.

실내 주요 공적공간들인 거실, 식당, 브리지 Theater, 주인거실, 홈바, 당구장, 손님거실, 수영장들은 모두 시각적으로 상호소통되며 서로가 서로의 풍경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여기에 더해 넓은 주정원과, 정원과 연장된 원경, 뒷마당과 뒷산 등의 자연







풍경들과 결합되는 실내외가 복합되어 만들어내는 회화적 풍경은 이 대지의 환경과 건축의 관계가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이집의 공간적 성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금속성의 건축적 작은 산의 존재는 자연과 건축의 조화로운 공생의 풍경이 될것이다.

As the urban nature, this site which is contact with woomyeon-mountain, urban park as the natural greenery area, is the ideal place that have environment to satisfy residential and recreational purpose which are desired by most urban people.

In order to secure the maximum area of the south-facing garden, in the irregular polygonal shaped site, main building is laid on the northern part of the site along the irregular boundary line.

After all, the shape of the main mass of this house was to be an irregular polyhedron due to polygonal shape of site and legal code to secure the range to absorb the sun-light, and naturally, this result is equal to the intent of formation to harmonize with the context of the surrounding nature.

From this cause, exterior space of this house is composed of system to circulate, inner court extended to distant view, rear garden extended rear hill, sunken garden, recreational garden, each other.

By separating small office space and housing, each other, the neutral exterior space which occurred in between of them act as an approaching space, the place of penetration through courtyard and backyard each other, and the recreational court covered with roof.

The public major space, living room, dining room, bridge theater, master living, homebar, billiard room, guest living room, swimming pool are planned to be the scene of each other through the mutual communication of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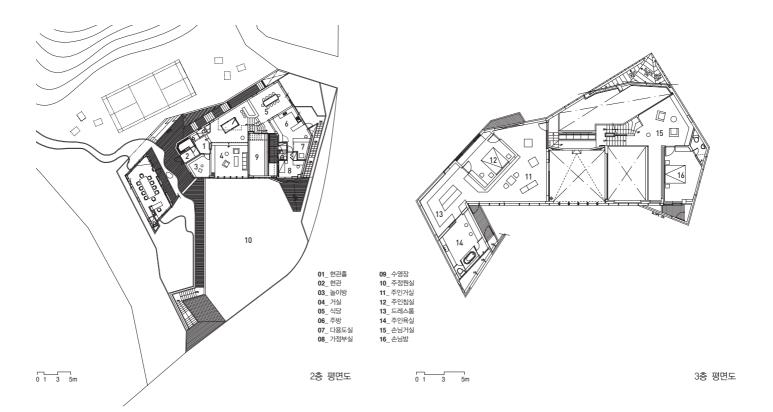
In addition to this, the picturesque landscape which drawn by the large main garden, distant landscape extended garden, indoor and outdoor landscape combined with natural scenery of back yard and rear hill is the representative special character of this house that was made by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of site and architecture

The existence of this small metallic hill which is cherished by Woomyenmountain will be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nature and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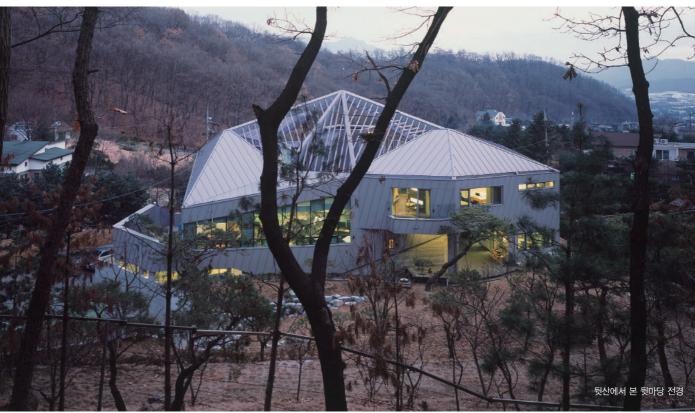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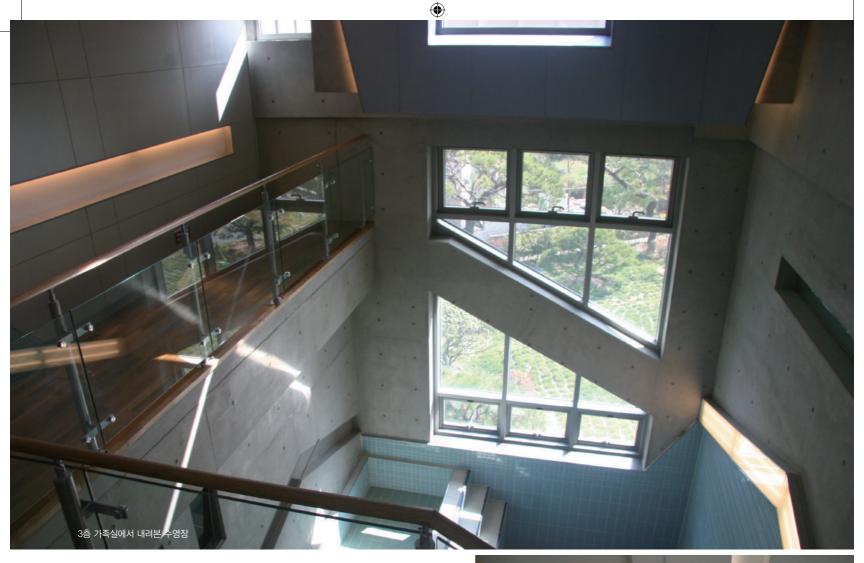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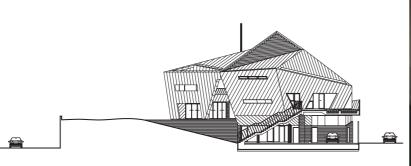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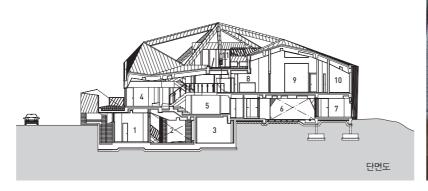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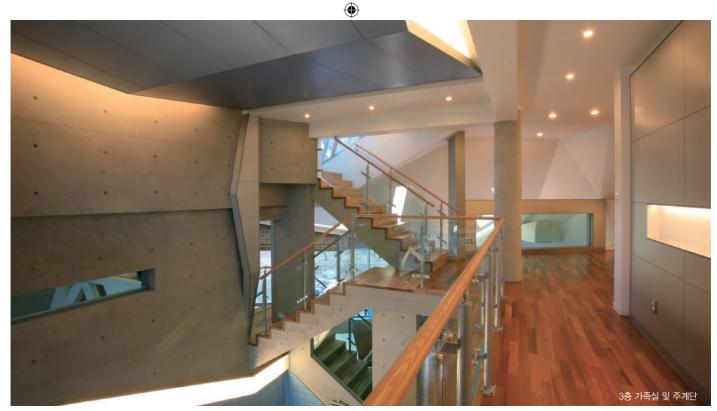
01_관리안실 05_당구장 09_침실 02_지하마당 06_휴게마당 10_드레스룸 03_기계실 07_집무실 11_옥상정원 04_식당 08_주인거실





•

•







WORKS

모켄펜션

THE PENSION MOKEN

건축주 | MOKEN

설계자 | 곽희수_KIRA | (주)이뎀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김준수, 지훈, 최기선, 김민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한라ENG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동양기술단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태영이엔지

- 토목분야 : 신성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이백화 (주식회사 제효)

대지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652-280

대지면적(Site Area) | 1,65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433.64㎡

연면적(Gross Floor Area) | 588.9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6.28%

용적률(Floor Area Ratio) | 29.37%

규모(Building Scope) | B1-3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감재 | 실외_노출콘크리트

사진(Photographs) | Yun, Jun-hwan

Location | 652-280, Sinon-ri, Nam-myeon, Taean-gun, Chungcheongnam-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Halla 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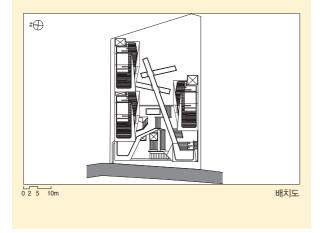
HVAC Engineer | Taeyoung

Electrical Engineer | Dongyang

General Contractor | Jehyo

Client | Moken

Project team | Kim, Jun-soo / Ji, Hoon / Choi, Ki-sun / Kim, M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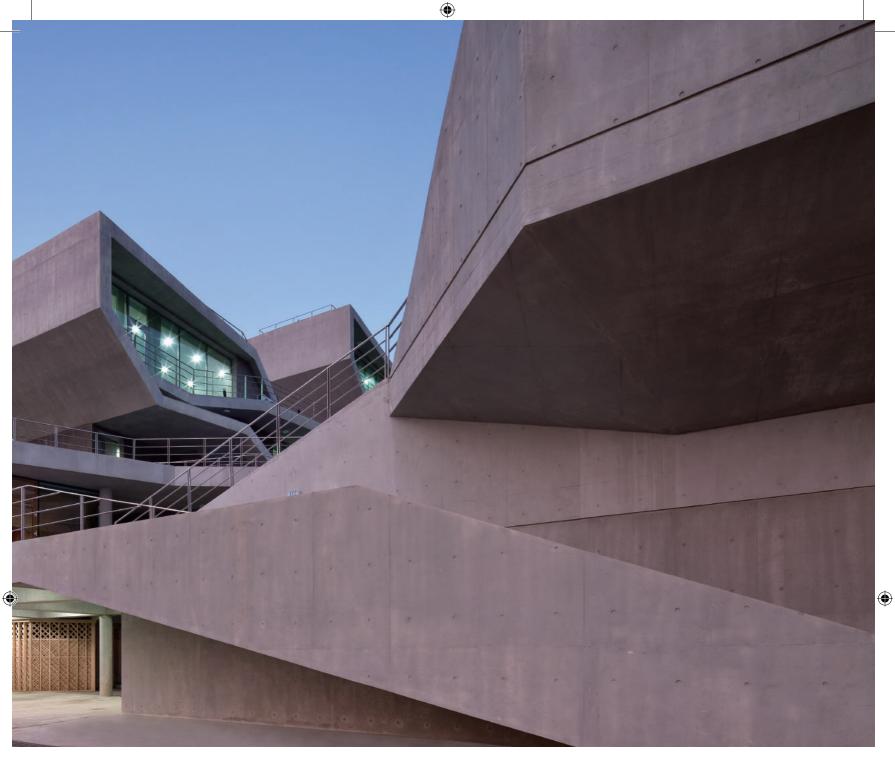
텐트치기 한국말에는 '찾다'라는 동사가 있다. 고향, 산, 바다 등의 장소로 옮겨간다는 의미인데, 한자의 '發見' 혹은 영어의 'Find'처럼 사물이나 현 상을 알아낸다는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된다.

찾는 대상은 주로 '자리(장소, 공간)' 이다. 그리고 '자리'라는 말은 위치나, 한정된 공간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단지 자리는 거점일 뿐 실제행위는 그 주변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야영장에 텐트(Tent)를 치는 행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텐트를 치기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집을 나서지 않는다. 텐트는 단지 노는 자리의 보조적 장치일 뿐 이들의 주된 목적은 주변을 즐기기 위함이다. 그래서 놀고, 먹고, 즐기는 행위는 대부분 텐트 밖에서 일어난다.

펜션은 노는 자리이다. 펜션을 찾는 사람들도 텐트를 치는 사람들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펜션은 숙박자체보다 부대시설과 수려한 외부환경, 주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주변의 여건이 놀기에 적합한자리가 아니고, 볼거리 또한 경작지와 몇 명의 농부가 제공하는 특색 없는 시골풍경에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켄펜션의 입지가 그렇다. 여







기에는 펜션들이 공짜 빵처럼 흔하게 누렸던 수려한 풍경이나 간단한 놀 거리조차 부재하다. 과연 야영장보다 더 강력한 텐트는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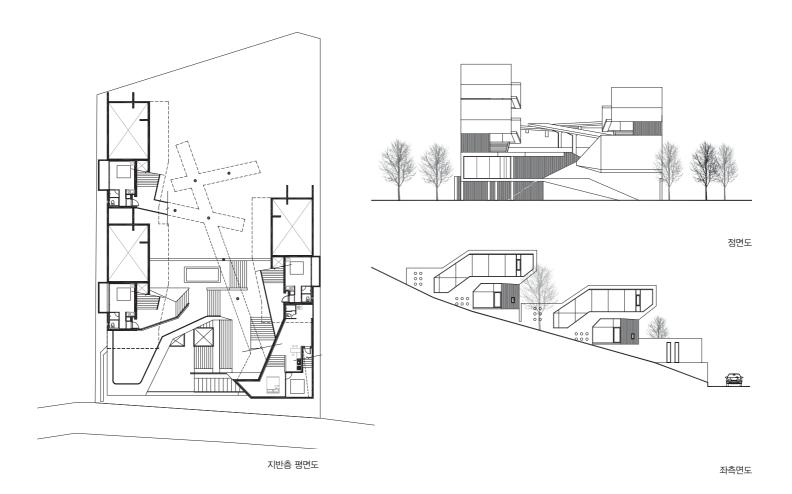
강력한 텐트 치기 모켄의 전반적 개념은 단지의 내부로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건축전체는 마치 놀이를 위한 다양한 기계적 장치에 가깝다. 경사지의 조건이 유일한 모켄의 장점이다. 그러나 경사지 조건에서 건축이 기울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장애만 일으킬 수도 있다. 각각의 유닛이 폴딩되고 레벨 또한 잰걸음으로 반층씩 스킵된 이유는 불안전한 대지조건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위함이다. 경사극복과 유닛조합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뼈의 연골조직과 같은 매체적 공간이 필요했다. 이것이 개별유닛마다 갖게 되는 노천공간이다. 이 공간의 프로그램은 노천욕과 파티등이다. 이 공간에서는 자연의 시간성과 여과된 빛, 그리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 연속된 대지의 단면은 경사지의 원형을 유지하면

서 크고 작은 노는 자리들과 마주치며, 브리지(Bridge), 그리고 내부를 통해 닿을 수 있는 옥상과도 연속되어 있다.

모켄은 집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익숙한 도시적 건축이 전원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비일상이란 개인의 정서에 주는 충격이 아니다. 경험된 공간이 자신의 일터와 생활공간을 떠나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알튀세르(Louis Pierre Althusser)가 말하는 우발적 마주침과 접하게 된다.







Setting up a tent

The meaning of the verb "find" has a slightly different additional meaning in Korean compared to English and Chinese. in Korean, "찾다(CHATDA)" also means "visiting or exploring a different place such as a mountain, countryside or a beach", or, in other words, places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space of everyday life.

One common thing about places that people "find" is that such places are often for rest and refreshment. However, these places are not restricted to just a small area. These spaces are only a base for activities; the real activities take place in the surrounding area. A good example is setting up a tent in a camping area. Nobody intends to spend a huge sum of money and effort in setting up a tent. The tent space is simply a secondary one, only for resting purposes, whereas a visitors' main interest is the surrounding area, where various activities can be enjoyed. Therefore most activities take place outside the tent. This can be applied to resort pensions as well. Visitors to a resort pension have the same intention as people setting up a tent. It is important, then, for a resort pension to be located close to various amenities and for it to command breathtaking scenery. But what will happen if a resort pension is located at a place without any amenities and which only offers typical countryside landscape? This was the problem for pension Moken. Pension Moken was not at all an attractive choice for customers. Can a tent be much more attractive than a camping area?

A tent of great attraction

The distinctive features of Moken are concentrated inside the resort pension complex. The only possible advantage of the site of Moken is that the site is sloped. However, if the buildings fail to take full advantage of this point, the sloping of the site will only be a serious obstacle. To respond properly to the slope, the shape of the buildings are folded, rather than straight, when seen from above, and each unit is built on a different level of elevation? with a difference of a half-story height between each. A buffer zone was required to deal successfully with the sloped land and the building layout/combination at the same time. This buffer zone was developed into an open air space attached to each individual unit, with this space reflecting the themes of parties and open-air bathing. Visitors can experience the seasonal changes of landscape and the daily lapses of time through the changing direction of the sunlight. Various big and small spaces for refreshment face each other without changing the original gradient of the site and these spaces are intrerconnected with bridges and roof gardens that can also be accessed from the inside. Moken explicitly shows visitors that city-style architecture can still work in the countryside. Allowing people to escape from everyday life is not about letting them experience something completely new. Rather, people can experience "Accidental Encounter", as Louis Pierre Althusser puts it, when they travel and get into contact with a familiar space at an unexpected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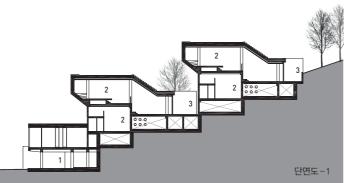
연속된 대지의 단면은 경사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크고 작은 노는 자리들과 마주치며 브리지와 내부를 통해 닿을 수 있는 옥상과도 연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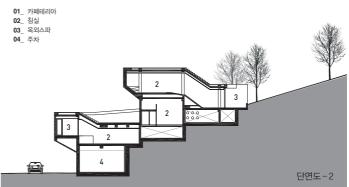














경사지의 조건이 모켄의 유일한 장점이다. 그러나 경사지 조건에서 건축이 기울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장애만 일으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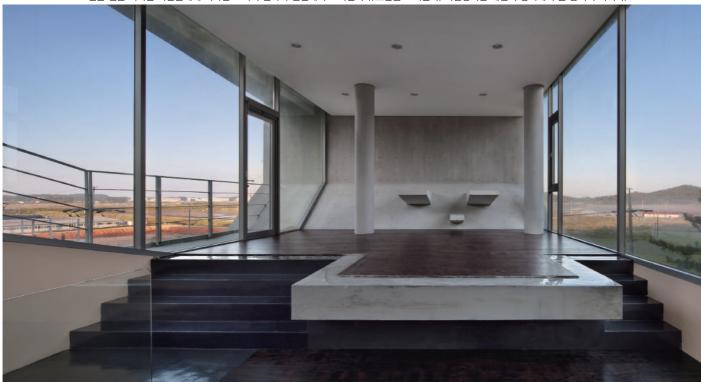








모켄은 집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익숙한 도시적 건축이 전원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비일상이란 개인의 정서에 주는 충격이 아니다.









WORKS

고양실내체육관

GOYANG INDOOR SPORTS ARENA (AERO DOME)

건축주 | 고양시

설계자 | 안길원_KIRA |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최창섭, 반광효, 양지연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단구조, ES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석우엔지니어링, 대부소방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환승엔지니어링, 대부소방

- 토목분야 : 삼일CEC

설계자 | 현대건설(주)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회동 2320번지 외 8필지

대지면적(Site Area) | 32,545㎡

건축면적(Building Area) | 15,238㎡

연면적(Gross Floor Area) | 31,46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4.41%

용적률(Floor Area Ratio) | 22.85%

규모(Building Scope) | B1-3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우레탄페인트)

지붕 : 3D TRUSS + UNDER TENSION

마감재 | 실외_불소필름 강판, 접합복층유리, 복층유리

실내_전용경기장 : 흡음패널(FG보드), 수영장(관람석) : 흡음패널 (알루미늄유공패널), 보조경기장 : 흡음블럭 치장쌓기

Location | 2320 Daehwa-dong, Ilsanseo-gu, Goyang-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Urethane Paint)

Roof: 3D TRUSS + UNDER TENSION

Finishing Materials | PVDF, Insulating Laminated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F.G board, Sound Absorption Blocks

Structural Engineer | DAHN Engineers & Consultants, ES & Partners
Structural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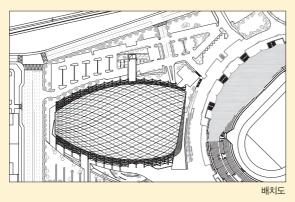
HVAC Engineer | Hwan Seung Enginerring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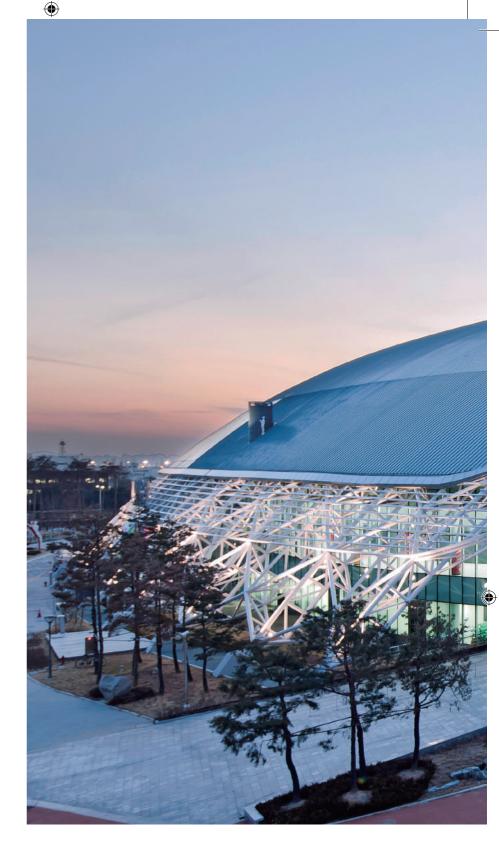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SUKW00 Engineering inc.

General Contractor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lient | Goyang Urban Management Corporation

Project team | Choi, Chang-seob / Band, Gwang-hyo / Yang, Ji-hyeon





고양실내체육관은 다양한 접근성을 고려한 오픈 스페이스로 계획되었다. 접근에 따라 기능별 연계성을 고려한 시설배치, 녹지와 중앙 광장을 연계한 친환경적 외부 공간 구성, 수의 시설 예정 부지와 연계된 열린 문화 공간 형성에 배치의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건물의 인지성, 다양한 정면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도심으로서의 중심성 및 접근에 따른 건물의 인지성 고려, 도시와 자연으로 열린 공간 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면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종합 운동장 시설과의 원활한 연계를 고려하였다.





Goyang Indoor Sports Arena 'Aero Dome' was designed as an open space with various accessibility op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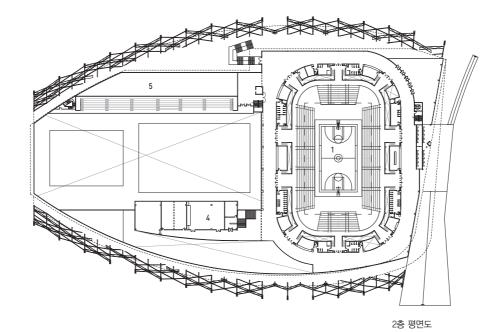
The design focuses on a layout that considers a functional connection between the facilities and the environmentally-friendly exterior space connects green space and central space.

It also provides the connection between cultural and commercial programs, smooth transition to the existing stadium wa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blacksqu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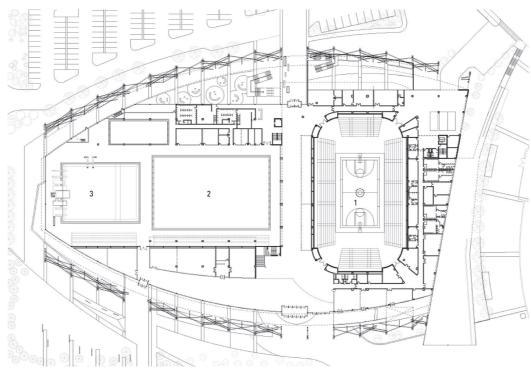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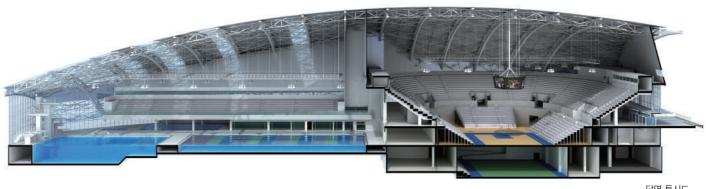


01_ 농구장 02_ 수영장 03_ 다이빙대 04_ 문화교실 05_ 관람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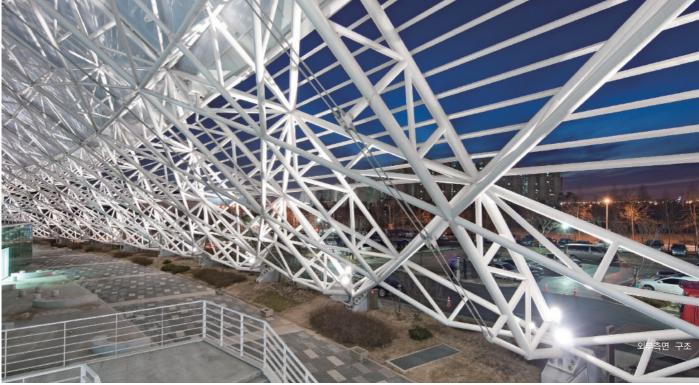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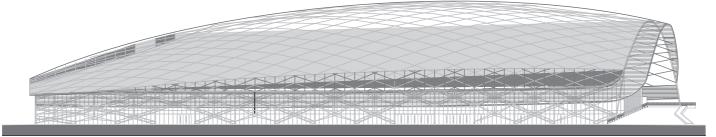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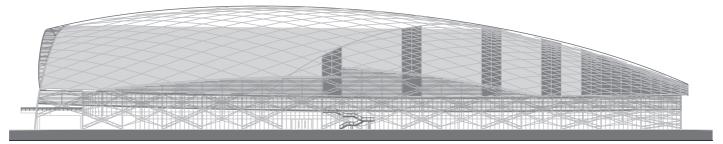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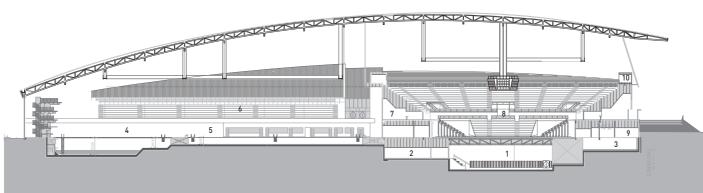
배면도











종단면도

09_ 응급처치실 10_ 조정실

01_ 보조경기장 02_ 메디칼센터 03_ 지하주차장 04_ 다이빙풀

05_ 경영풀 06_ 관람석 07_ 콘코스 08_ 전용경기장





대전문화예술센터 _당선작

DAEJEON CULTURE & ART CENTER

설계자: 최재인, KIRA |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빌모트

설계팀: 구본관, 황현하, 최용환, 공진우, 정현정, 배가연

발주처: 대전광역시 건설본부관리

대전의 심장부에 자리한 대전문화예술센터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시행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제공할 수 있다. 중앙로와 대흥로 교차로의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는 부지는 멀리서도 눈에 띄며, 도로에서 3면을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내에서 프로젝트와 센터 안 무대에서 공연되는 이벤트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지표로서의 물리적 랜드마크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대전문화예술센터의 곡선 형태는 주변환경을 부드 럽게 만들고 이 지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건물의 원형 형태는 북쪽, 서쪽과 남쪽이 동일하게 개방된 비방향적 형태를 만들어 대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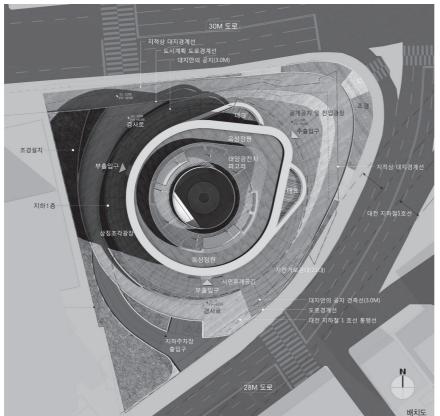
이루고 있는 도시 그리드 의 차이를 조화시키고자 하 는 욕망과는 동떨어진 형태 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동 쪽 면은 마치 햇빛을 보기 위해 몸을 햇빛 쪽으로 굽히 고 있는 꽃봉오리와 같이 정 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먼 거 리에서도 볼 수 있는 생생하 고 기념비적인 출입구 파사 드를 형성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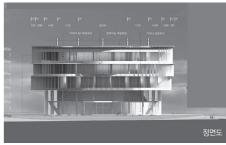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27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6,307.00m² 건축면적 1,993.77m² 연 면 적 8,666.86m2 건 폐 율 31.61% 용 적 률 93.89% 지하 2층, 지상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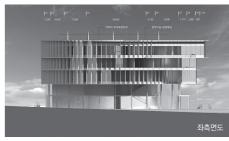
046 COMPETITION _ 설계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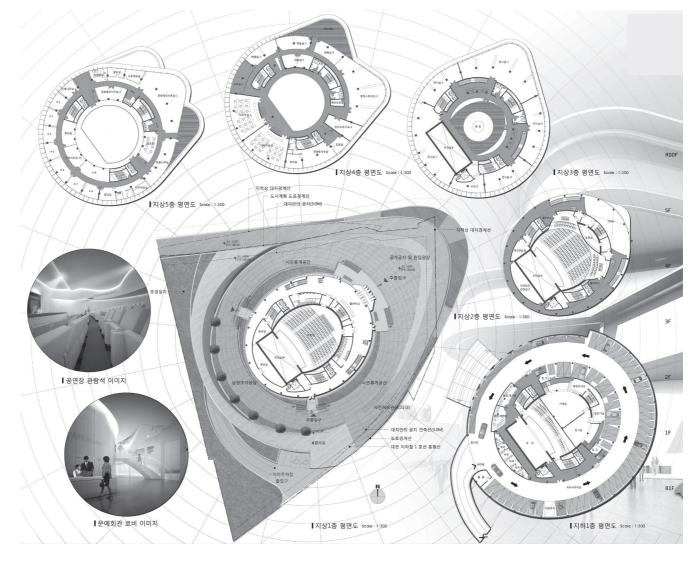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첨단생체소재연구센터 _당선작

UNIST Advanced Biomaterial Research Center

설계자: 김인기, KIRA | (주)현대종합설계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김광수, 윤창모, 김영근, 장진석, 황정범 이상군, 정우진, 안재균, 심재선, 문정기

고정훈, 이원우, 신혜영

발주처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024,234m² 건축면적 연 면 적 201,159.70m² 건 폐 율 3.84% 16.11% 용 적 률 지하1층 지상5층

SMART - MATRIX 다변화하는 생체소재 연구환경을 반영한 최적화된 스마트 연구소로 기존 시설과 연계된 통합형 외부공간으로 남향의 광장과 전면광장을 계획해 인근의 동물실험 동과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실험 프로세스를 고려한 통합형 조닝으로 실험실 전면에 각각의 준비실들을 배치해 연구기능을 최적화했으며, 동물실험동으로의 동선을 최소화하였다.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성되도록 실험실은 균일한 조도가 확보되는 북측에 계획하였으며, 교수연구실인 실험준비실은 채광이 확보되는 남측에 계획하였다.

SAFE-MATRIX 안전한 연구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최고의 특수실험연구실로 계획하였다. 안전한 연구환경 확보를 위해 기존 동물실험동의 청정존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다루는 간염 질환실험실을 최대한 이격하였다. 그리고 연구원과 실험체의 동선을 분리해 교차오염발생을 차단했으며 전실을 계획해 오염원의 외부유출을 차단하였다. 특수실험실의 첨단 연구환경을 고려해 설비층 뿐만 아니라 별도의 유지보수층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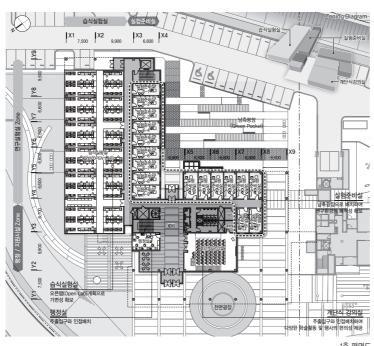
ECO-MATRIX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 연구소로 계획하였다. 주변 녹지와 연계되는 남측 광장과 전면광장, 휴게 마당, 옥상 정원을 고려하여 입체적 그린네트워크를 계획하였다. 단열 및 외피성능을 향상하고, 윈드포켓과 저층부 필로티로 바람 길을 열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한 Passive 설계를 하였다.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등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 연구소를 완성하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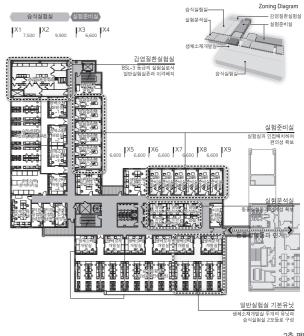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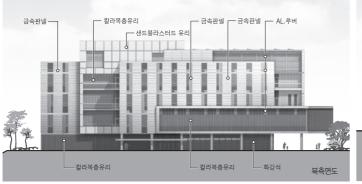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영등포 제2구민체육센터 _당선작

YEONGDEUNGPO 2nd SPORTS CENTER

설계자: 함인선, KIRA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송유석, KIRA | (주)한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선진 _ 박윤호, 심형준, 윤여갑, 김은진, 전대열 박준규, 김영균, 박경준, 변재희, 천아름

한기 _ 허은정

발주처 : 영등포구청

대지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6−1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대지면적	1,506.90m²	
건축면적	829.07m²	
연 면 적	7,245.35m²	
건 폐 율	55.01%	
용 적 률	227.86%	
규 모	지하 3층, 지상 5층	

소통과 자연의 흐름을 담은 복합체육공간

영등포 제2구민체육센터는 국회대로 및 영등포구에서의 상징성을 구현하고, 구민들을 위하여 공공성, 친환 경성을 고려한 복합체육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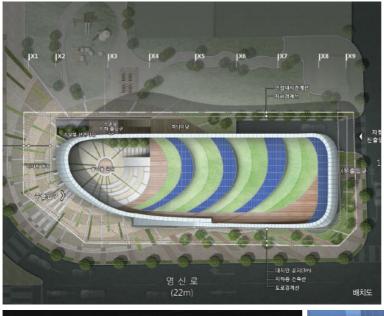
우선, 체육센터는 지역구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열린 공간이다. 저층부는 접근이 쉽도록 가시성을 높여 개방감을 최대화하였다. 또한 수익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은 로비와 인접 배치하여, 공개공지 및 인근공원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고려하였다.

둘째, 영등포 제2구민체육센터는 지역구민의 건강과 배움을 위한 복합체육문화공간이다. 수영장과 대체육 관은 지상에 배치하고, 수영장은 별도의 출입을 위한 선큰을 계획하였으며, 대지 내에서 보차분리를 명확 히 하였다. 또한 실내공간은 가변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주공간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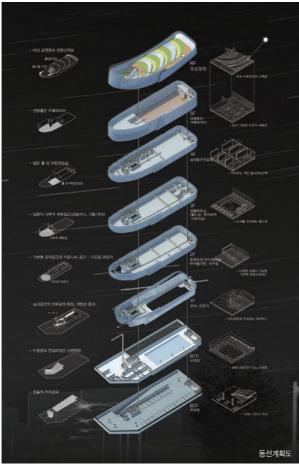
셋째, 체육센터는 친환경 공간이다. 실내 환경 및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대공간은 자연환기와 채광이 원활한 지상에 배치하고, 녹색공간인 옥상정원, 선큰과 연계하였다. 특히 외피는 각 실의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개구율을 조정하였으며, 일사조절, 우수집수, 환기성능을 고려한 스마트 외피(Smart Skin System)로 구성하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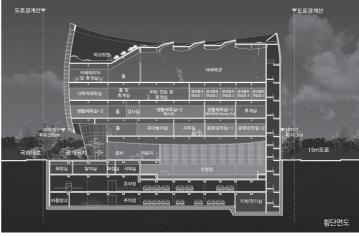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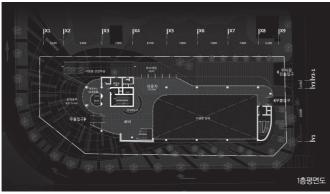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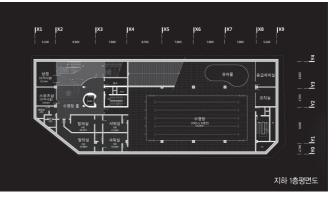














영등포 제2구민체육센터 유수작

YFONGDFUNGPO 2nd SPORTS CENTER

설계자: 노윤경, KIRA·한상범 | (주)우리동인 건축사사무소 +

여영호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설계팀:노경문,최제용,원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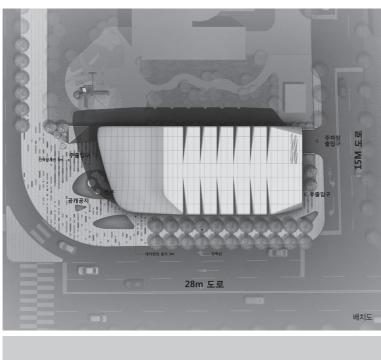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6-1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운동시설 대지면적 1.506.90m 건축면적 903.89m 연 면 적 7.433.72mi 건 폐 율 59.98% 용 적 률 250.18% 지하 3층, 지상 5층

프롤로그_영등포는 한강과 육지가 만나는 포구로서 서울의 관문이다. 또한 물류이동의 거점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공업이 발달하여, 먹고 살 거리가 풍부하여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우리는 이러한 장소적특성에 주목하여 이곳에 도시적흐름 Urban Flow을 담을 수 있는 건축적 장치를 만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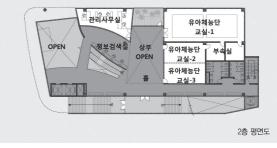
배치계획_ 대상지는 여의도와 한강에 인접하여 목동스포츠센터에서 국회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영등포구청과 구민회관 등과 인접하고 있어서, 새로이 지어질 스포츠센터와 연계된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 중심지'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적 흐름을 대지 내로 끌어내면서 동시에 스포츠센터의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진입동선이 될 사거리 모퉁이 공간을 열린 광장으로 계획하여 스포츠센터와 도시공간의 소통을 유도하였다. 더불어 주변 녹지공간을 진입광장 및 내부의 중정으로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머무르면서 각박한 도시생활을 재충전하는 공간과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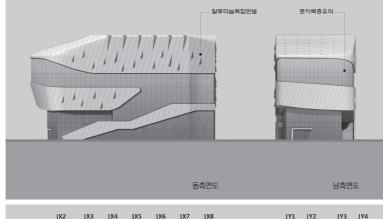
공간계획_제안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매스 내부에 총별 수직 공간을 이어주는 아트리움을 설정하여 다양한 공간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절 장치가 되도록 하여 에너지소모를 최소화 시켰다. 또한 외부의 열린광장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동선을 아트리움으로 연결하여 땅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건물 내부로 끌여 들였다. 내부공간은 아트리움과 복도를 연계시킴으로서 각 실별 접근을 선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실들은 필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도록 장스판의 구조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지하 수영장은 소라모양의 선큰을 계획하여 지상에서의 접근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천창을 설치하여 실내에 자연채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최상층의 다목적 체육관은 적정 층고확보 및 충분한 홀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운동경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직공간 조닝은 1, 2층의 패밀리존을 중심으로 지하의 수영장과 지상층의 스포츠레져 공간으로 구분하여 인지성 및 접근성을 극대화 하였다. 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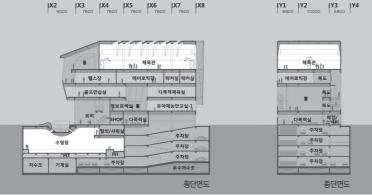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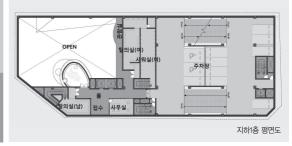




















영등포 제2구민체육센터 과

YEONGDEUNGPO 2nd SPORTS CENTER

설계자: 박규찬, KIRA | (주)신한종합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장대환, 이영구, 최천, 노은섭, 민주홍, 진규태

인성희

영등포에 들어서는 제2구민체육센터는 계획대지의 위치와 지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징적이며 랜드마 크적인 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공공시설로서 지역주민에게 이용되어질 용도와 기능은 소통과 동적 에너지가 끊임없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계획대 지의 협소함과 불리한 향, 일조권, 녹지의 부족 등에 비하여 주어진 프로그램은 만만치 않는 규모였다. 제2구민체육센터의 건립은 바로 이러한 계획대지와 프로그램이 맞물러있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연과 사람, 문화가 소통하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co Flow [자연의 호름] 도시의 녹지축을 선큰마당으로 흡수하고 이를 옥상까지 수직으로 연계하는 유기적인 친환경공간을 구성하여 생명력 있는 도시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또한 수영장 상부의 play roof는 도시로 열려있는 시선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기능적으로도 수영장의 자연채광환기가 가능하게 해준다. 남측으로 면한 스포츠시설의 공공커뮤니티 공간은 아트리움을 통해 자연이 살아 숨쉬고 지역주민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한다.

Community Flow [사람의 호름] 기존 영등포 도심과 새롭게 개발되는 공동주거 사이의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는 계획대지의 여건을 살려 양방향에서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스포츠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담아냄으로써 영등포 북부권역의 주민편의시설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써 기여하게 될 것이다.

Activity Flow [역동적인 흐름] 한강과 안양천이 감싸고 있는 영등포구의 지리적 특징을 반영한 생명력있는 매스의 형태와 국제 청소년 문화교류의 공간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영등 포아트센터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를 이어주는 시설로써 흐름과 에너지라는 Identity를 부여해 도시-영등포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될 것이다. 圖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6-1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운동시설

 대지면적
 1,506,90㎡

 건축면적
 884,64㎡

 연 면 적
 7,245,27㎡

 건 폐 율
 58,97%

 용 적 률
 238,11%

 규 모
 지하 3층, 지상 5층









Fundamental Doubt for Amendment (Plan) of Construction Technology Control Act

건축설계, 지식산업 서비스가 아니라 건설기술 용역으로 전락 시키는 개정안이다.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토해양부 주도로 (기정)건설기술관리법의 (변경)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일련의 연속된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검토하고 지켜보며, 대한민국 건축계에 상당한혼선 및 충격의 우려가 예상되는 바 그 사항들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ENG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규제 · 관리중심에서 진흥과 지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면개정 취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개정내용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차에 걸쳐 국토해양부 주도의 정부입법예고(2011. 12. 5~,2012. 03.)된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안)내용 중 건축사협회가 주시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문제점은

개정 건축기술진흥법의 제2조 정의 부분에서 (기정)'설계'<u>(「건</u> 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변경)'설계'<u>(「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설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u>로의 변경내용이다.

- ■입법 예고된 변경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란 '현상설계'만 국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그 외 턴키발주, PQ, BTL 등 나머지 방식에 의한 발주하는 건축물의 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내용에 따른 기술용역발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의 문제점들은 하기 우려사항들에서 언급되고 있다.
- ■이 법 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를 한다는 의미는 입법예고안과 수정안의 (안)제26조에 따라 즉, 발주청이 설계만 직접 발주하는 경우와 법2조 정의에서 나열하는 건설기술에 해당하는 용역업자가 (안)제26조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로 등록만 하게 되면 (안)제48조에 따라 모든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건축사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가 가능)된다.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자본의 법인설립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에 있어국가전문자격자가 아닌 무자격자도 설계가 가능하다라고하는 사실은 명확한 일이다. 이는 국가를 유지하는 근본제도를 부정하는 의미로서 국가전문자격자(건축사)의 공적권한 포기로 귀결되다

■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안전 등을 위하여 의료, 법률, 건축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개별법에 의하 여 운영되는 면허적 성격을 지닌 국가전문자격제도를 국가 에서 직접 관리하며, 이는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인 국가기술자격과는 확연히 구 별된다. 따라서, 개정 및 수정안의 내용적 결과는 X-Ray기 사, 일반인에게 환자의 진료행위를 맡기는 행위가 된다.

두 번째의 문제로는

건설공사에서 (기정)감리제도의 폐지라는 부분이다. 정부입법내용은 기존 감리의 역할이 사업관리의 분야에서 행하여지고있으니, 이를 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건설 및 ENG분야 선진화의 핵심으로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제도임과 동시에 다음 사항들의 치명적결함이 존재한다.

- ■기존 감리의 역할을 살펴보면 검측, 시공, 책임감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물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공적인 역할 및 제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분야에 있어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를 깨뜨리려는 것이다.
- 상기 제도의 시행으로 무기력하게 되는 제도로서 건축 관계자의 균형 파괴이다. 건축은 건축주의 의뢰하에 Worker





건설기술관리법 (현 행)	건설기술 진흥법 (변경, 입법예고안)
제2조(정의)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목의 기술된 사항을 말한다다만,(생략)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 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設計 監理)·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제2조(정의) 2. (현행과 같음) 7.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설계에 한한다. 이한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자문·지도· 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 <u>보수·철거·관리 및</u>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u>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u> <u>마. 건설공사의 감리</u> <u>바.</u>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u>사.</u> 건설사업관리 <u>아.</u>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 <u>관리·운영·보수·</u> 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u>〈삭 제〉</u> 〈 <u>삭 제〉</u>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 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u>〈단서 신설〉</u>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 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u>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u> 업무는 제외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삭 제〉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 · 시공관리 ·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 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11.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 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삭 제〉
12.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8.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28조 (감리전문회사) ① 책임감리등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 사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의7 (설비공사의 감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및 감리를 수행 하는 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 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 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 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시정 ·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igoplus

로서의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독립된 관계 축에 의한 상호 견제와 균형 및 조화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는 각기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역할로서 이루어진다. 개정법의 결과는 그 기본적인 Worker에 의한 축을 허무는 행위이다. 따라서 건축 현장에서는 사업관리자인 Manager에 의한 경제성만 추구되며 건축물 부실의 원인이 될 것이다.

■ 세 번째의 문제로는

개정법 전반에의 내용은 기존의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 안전관리 등 공사를 제외한 건설기술에 관련한 분야를 건설기 술 용역업으로 묶어 놓고 모든 건설기술용역업체가 일반 법인 의 사업관리자에게 지배를 받는 내용이다. 또한 건설기술용역 업자인 사업관리자가 감리자의 역할을 중복하는 부분은 더욱 심각하다.

- ■사업관리자의 근본은 발주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Manager의 역할인데, 개정 및 수정(안)에서는 건축관계자로서의 Worker역할까지 한다고 법률안에 담고 있다. 이는 곧 관리자가 아닌 것이다. (안)제26조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사업관리자가 감리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과연 선진화의 제도인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
- ■사업관리자의 자격은 (안)제26조에 의하면 별도로 정하여 지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법인으로서 신고하면 된다. 이는 대한민국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분야에서 국가 전문자격자 및 기술자격자가 무자격자인 누구든지 설립할수 있는 일반 법인에 의하여 관리 및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의 객관성을 위하여 사업관리용역업무 이외에 감리용역업무 등 기타 기술용역업무를 검업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격은 국가 전문자격자로 하여야한다. 현재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될 수 있는 민간자격자는 배제되어야함은 기본사항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 ■사업관리자는 발주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조사·기획· 설계부터 공사 및 감리 등 건설사업의 전 분야에 걸쳐 관리 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법 전체에 언급되고 있는 사 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감리자의 권한 등 후속공종의 '감리 업체'가 선행공종인 '설계'에 관여하는 결과에 귀결된다.

다시 말해서 발주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업관리자가 건설기술용역 전반에 걸쳐 자신의 손아래 두게 된다. 만일 대규모 자본을 가진 건설회사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 현장을 관리하게 되면 '발주청÷사업관리자(설계, 감리등 포함) ÷건설회사라는 괴기한 관계가 설정된다. 이것이 국토해양부가 원하는 그림이자 선진화인가?

개정(안) 제29조에 의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

도를 실적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할 사항이다. 이로서 건설시장에서 자본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네 번째의 문제로는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축분야에서는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감리를 폐지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인 사업관리자로 하여금기존 감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였으나, 정작 건축에서 통합 조정해야하는 건축설비분야(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에서는 통합하지 못하고 개별법에 의한 감리체계를 그대로 둔다면 그 건설기술진흥법이 진정한 진흥법이며, 그 정당성 및 선진화라는 명목이 과연 합당한가? 다시 말하면, 기존 감리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개정하는 제살만 잡아먹는 개악이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공공발주사업의 발주청이라는 것에 한정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으로 파생되는 효과는 국내의 건설시장 전반에 골고루 미칠 것이다. 즉, 민간시장으로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기존 시장질서의 혼란이 예상됨과 동시에 기존 건축 관계 질서 및 제도의 체제붕괴가 예상된다. 그 결과 건축분야에서 국 가전문자격제도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가치 및 역할이 상실되고 금전만 알고 이익만 추구하는 건설사업관리(무자격자)가 국가 전문자격자위에 군림하는 세태가 발생할 것이다.

건설사업관리(법인)가 일정 자격자를 고용하게 되면 설계, 감리, 사업관리를 한 곳에서 가능케 되고, 무자격자에 의한 자본의 법인설립으로 공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가진 국가전문자격자(건축사)의 공적권한 포기로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대형 건설용역업자가 생겨 건설산업발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발주자와 시공자로 이분되며, 나아가 발주자 늦시 공자라는 이상한 현상은 물론 자본에 의한 국내 건축시장의 재편 및 나아가 국민 경제가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의 초래가예상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건설재벌 자본가를위한 편들기로 건축시장을 한곳으로 몰아주는 결과로 예상된다. 이것이 과연 국토해양부의 숨은 그림인가?

건축은 건설기술로 취급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사에 있어 동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집대성으로 이루어지는 창작행위인 것이다.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기술적요소인 것이다. 오늘날 현실이 아무리 금전 우선주의라 할지라도 어찌 돈과 기술이 사상이요, 문화요, 정신을 지배하려 하는가? 이는 아랫물이 윗물을 거슬러 침범하려는 것으로 세상 불변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로서 이 시대의 건축인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圖

〈오동욱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류춘수 건축사가 지난 3일~17일 예술의 전당에서 이공건축 창립25주년을 기념하여 '건축사는 드로잉으로 말한다' 전시회와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서 그를 만나 건축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보았다.

인터뷰: 최락청, 문지은사 진: 손석원

류춘수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약력

1946년 경북 봉화에서 출생, 안동사범병설중학교와 대구고(*64), 한양대 건축학과(*70년)를 졸업하고, 서울대 조경학 석사(*84)학위를 취득했다. '70년부터 '74년까지 제네랄건축과 종합건축을 거친 후 '74년부터 이공건축을 설립하기 전인 '86년 까지 김수근 선생의 공간건축에서 12년 간 근무하고, 1986년 10월, 이공건축(異空建築)을 창립, 현재에 이른다.

전시회를 열게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금 이야기하게 될 이런 저런 이유와 이공건축 창립 25주년 기념도 할 겸,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요즘 건축사들은 드로잉을 잘 안하는 것 같다. 턴키를 공모하면 대부분 규모가 있는 대형사무소와 건설회사가 당선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대형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가 이렇게 몰두해서 그리는지 의문이다. 심지어는 외국회사의 도면을 돈으로 사서 쓰거나 전혀 디테일이 없는 도면을 컴퓨터로 이상하게 그려 제출한 뒤 로비로 마무리해서 당선을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닌가? 이를 총괄해 주도하는 건설회사, 그것을 당선시키는 사람도, 이런 제도를 지속시키는 국가도, 모두 우리나라 건축을 망가트리고 있는 장본인이다. 그런 사람, 집단들에게 "제대로 하는 건축설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또 하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 즉 보편적 가치, 대중하고 함께 호흡하는 작품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작은 것으로는 트로피 디자인부터 크게는 중국의 도시설계, 또 2002월드컵경기장 같은 건축물은 매우 기술적인 것으로 감성적인 사찰건축과 사뭇 다른 느낌, 즉전체가 아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 명성을 내세우려하지 않고 작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후배들, 동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INTFRVIFW

또한 전시회명의 선비 '사(士)'가 아닌 스승 '사(師)'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건축사(建築士) 대신 건축사(建築師) 로 표현 한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자격증이, AIA 멤버가 아닌 사람은 아키텍트를 쓰면 안 된다. 명백히 불 법이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 가지다. 일본은 건축사를 세분화해 서 쓰지만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명칭을 쓸 수 있다.

물론 자격증이 없는 사람 중에도 뛰

어난 사람이 있어 이를 건축가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자격명칭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되는 거다.

원래 장기에서 보면, 졸(卒)과 사(土)가 있다. 졸은 무인계급의 가장 아래를, 사는 문인의 관리 쪽의 말단을 사라고 한다. 우리가 말하는 선비가 아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건축사협회인데 '사(土)'라는 용어는 조금 창피하다. 이것은 일제의 나쁜 유산으로 한자문화권에서 현재 한국과 일본만 이렇게 표기하고 있을 뿐, 의사(醫師)는 이를 고쳐 쓰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외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느꼈던 점과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 프로젝트나 국내나 사정은 같다. 에피소드야 얼마나 많겠는가? 모든 프로젝트는 할 때마다 에피소드가 생겨난다. 일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독특한 에피소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건축주가 너무 좋아할 수도, 싸울 수도 있고, 건축주를 설득하는 과정 등도 있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거친다. 국외도 마찬가지다. 말과 글을 영어로 혹은 한자로 쓰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설득할수도 있고, 아무튼 수도 없이 많다.

중국에 지사가 있는데, 그 지사 전 자오칭(趙晴) 대표가 어제 강연을 했다. 그는 나에게 "선생님은 친구이자 스승"이라고, "청화대학교 건축과를 나왔지만 거기서 배운 것보다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열배는 더 많다"고 말한다. 내 입으로 이야기 하기는 쑥스럽지만외국 건축사에게 존경받는 한국건축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오랜 세월 건축에 몸담으시면서 부침(浮沈)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비법이 있다면?



그건 질문도 아니다. 왜냐, 사람의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 생 부침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 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벗어나면 죽는 거다. 왜, 사람 죽었 는지 살았는지 보는 맥박 그래프 있 잖아? 직선은 죽었다고 한다. 즉 곡 선, 이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부 (浮) 뜨고 침(沈), 살아 있다는 것이

다. 인생은 부침이다. 누구나 당연한 거다. 매일 같이 부침 속에서 사는 것이다. 즉 변화다. 변화를 한자로 하면 무상(無常)이라고 한 •

다. 무상이라는 것은, 상(常)이라는 것은 일정하다는 것, 바로 콘스턴트(constant)다. 무(無)가 앞에 있으므로 즉, 콘스턴트 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가. 우주의 질서에는 가만히 있는 것은 없다. 그걸무상이라고 하는 거다. 우주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지, 심지어 별도 태어나서 죽잖아? 변화, 우주의 본질은 무상, 낫 콘스턴트(not constant), 부침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다.

대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중에 특히 애착이 가는 작품은 무엇인지요?



군이 언급을 한다면 한계령 휴게소와 시골 우리 집(현재 류춘수 건축사는 봉화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올림픽 체조경기장, 삼하리 주택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전시회의 특색이라면,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작품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도시계획부터 아주 작은 트로피까지 크고 작은 것

에 대한 구별이 없고, 전통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경계나 구별이 없다.

여기 보면 작은 트로피가 전시되어 있다. 이 작은 트로피 하나가 크기로 따지면 월드컵 경기장에 수천만 개는 들어가겠지! 그런데 디자인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봉렬 님의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경계를 넘나드는 건축사?" 아무튼 제목이 좋은 것 같다. 넘나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넘나들 경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작품 중에 강촌휴게소의 예를 들어 말한다면, 준공 후에 설계자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국내 최초의 멤브레인 건축의 특징인 텐트를 없애고 다른 재료로 덮었다. 이것은 범죄다. 이를 허가해준 강원도나 담당자, 건축주 모두 문화적인 범죄자다. 형법으로만 범죄자가 있는 게 아니다. 문화적인 범죄자로는 중형이라고 생각한다. 또그런 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서울시 영등포구민회관이 나의작품이다. 현상으로 당선되어 준공 후에는 서울시건축상 등을 받았고, 당시 이동국 서울시 국장이 서울시에서 지은 건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극찬까지 한 작품인데, 몇 수년 전 건축물 속 팅빈 공간을 유리창으로 막고 해서 다 버려놓았다. 또 문제는 분명 허가는 받았을 터 누군가 도면을 그렸을 것이고, 분명 건축사일 것이다. 일을 시킨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태연이 맡은 건축사가 더 큰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이의 단속과 방지가 대한건축사협회의 역할이다. 개인이 나서서 고발하는 등의 조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때문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圖





근원(根源)의 반추(反芻)

Rumination on the Orgin

"이화월백(梨花月白)한 삼경천(三更天)에 소쩍새의 곤명(困鳴)이 애절하고 바람과 물소리를 타고 흐르는 종성(鐘聲), 그 물과 돌과 나무의 서정(抒情)은 결국 나의 건축의 일편의 경향인 지역성(地域性)의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고향, 봉화 북지마을 풍경

경북 봉화군 물아면, 고향 뒷산인 문수산 중턱에 있다. 소 사스 시점에 머무더

축서사

당익에 있다. 재수, 삼수 시절에 머물던 곳이며, 부모님께서 이 곳에서 빌어 날 낳으신 마음의 고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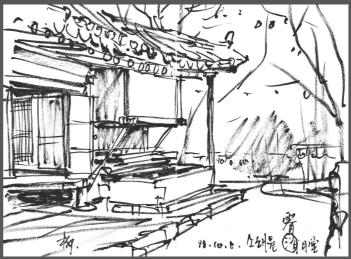


한국성(韓國性)과 세계성(世界性)

Korean and Global Identity

東과 西가 통하며 古와 今이 하나가 되는 세계성(世界性)의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인류의 대표적 사상(思想)의 틀인 샤마니즘과 유.불.선(儒.彿.仙), 그리고 기독신앙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산지 보다 철저히 실천하고 융합(融合)한 한국성(韓國性)이 창조의 샘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늘 고향(故鄕)과 이 땅의 아름다운 산천(山川)을 눈물나게 사랑하며, 면면(綿綿)한 가풍(家風)과 우리 문화의 정체(正體)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랑한다.





담양 소쇄원

062 SKETCH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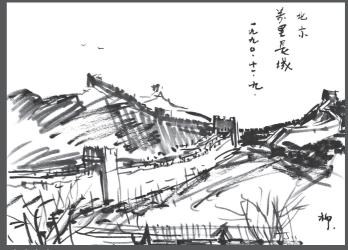
색불이공(色不異空)

Visible is not different Invisible

"건축의 공간(空間)은 결국 언어(言語)가 이닌, 色(재료와 빛), 聲(소리), 香(냄 새), 味(맛), 觸(texture)의 오감(五感)을 통한 法(기법)의 수단으로 빚은, 손 에 잡히지 않는 공(空)인 것이다."



워싱턴 I Washington



만리장성 I Great Wall



대지(垈地)와의 융합(融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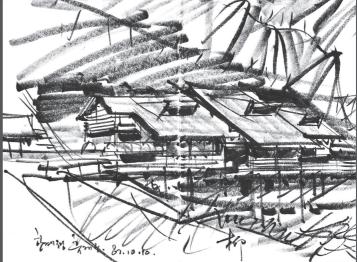
Integration with Site

"한국의 건축은, 특히 내가 자란곳은 산지(山地)이기에, 마을 배치는 물론, 주 택이나 사찰(寺刹)과 서원(書院) 등, 우리의 전통건축은 경사진 땅에 어떻게 놓이느냐의 문제로 시작된다. 이것이 나의 건축의 가장 원초적인 관심이며 해법(解法)에의 길이다.



한계령 휴게소

약 40도의 가파른 비탈에 세웠다. 철골과 목재의 합성 구조로, 디테일에 심취한 작품 이다. 기둥의 길이가 지형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은 전통건축에서 배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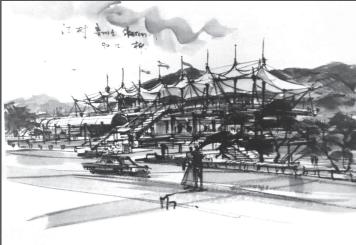


강촌 휴게소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멤브레인 건축이다. 그러나 주인은 텐트를 걷어내고 비둘기 창이 있는 아스팔트슁글 지붕으로 바꾸었다.



강촌휴게소



테헤란 알보즈하우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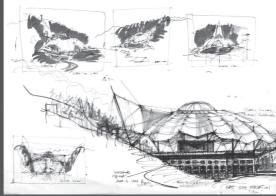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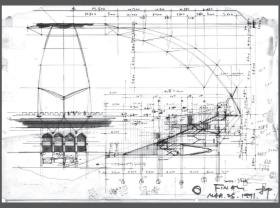
수시중처(隨時中處)

Adaptation on Context

"주어진 특수 상황인 수시(隨時)에 중처(中處)한다는 것은, 문제의 평균적 타협도 아니며, 정해진 기준의 틀로 해법(解法)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변경할 수 없는 그 시간(時間)과 장소(場所)에 가장 적합(適合)한 방식을 취한 다는 논어(論語)의 가르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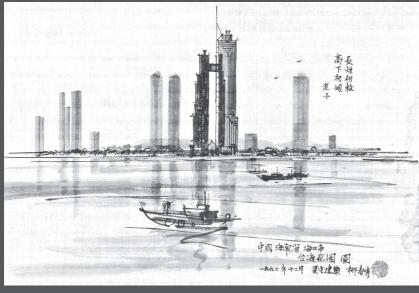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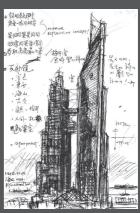
인스부르크 스키점프장 국제현상설계안

중국 프로젝트

1988년 한중수교 4년 전,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준비공정위원회'의 자문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래 건축 및 도시재개발 설계 등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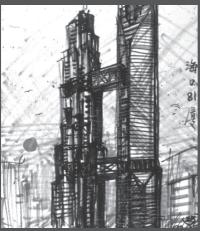






하이코우 868타워

서양건축사들이 설계한 수많은 Twin Tower와 달리 생김과 높이가 전혀다른 두개의 타워를 디자인하였다. 이는 남녀처럼 우주는 음양의 조화라는 노자의 사상과 매월당 김시습의 시에서 배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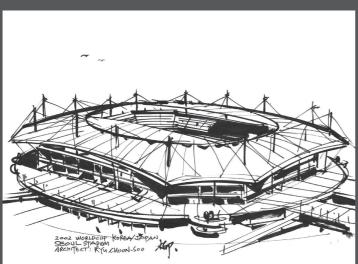


(

월드컵 경기장 당선소감(當選所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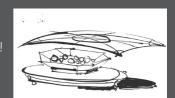
Seoul World Cup Stad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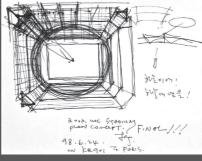
"소쩍새 울고 천둥치는 세월 속의 사연(事緣) 없이는 국화꽃이 필 수 없듯, 영광이 내게 몰리는 듯한 오늘의 당선에는 수십년 쌓은 스승과 동료와 후학간의 연륜 (年輪)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며, 비는 소원(所願)이 하늘에 닿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祖上)이 돌봐 주신 은덕(隱德)이리라."



방패연과 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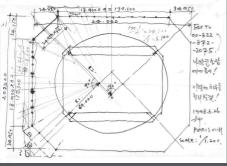
1998년 6월 24일 KAL 901호 파리행 비행기에서 기내잡지 〈모닝캄〉에서 본 방패연 사진은 디자인 변경의 결정적 영감이 되었다. 파리 렐리제 호텔방에서 그린 드로잉은이 경기장 설계의 시작이며 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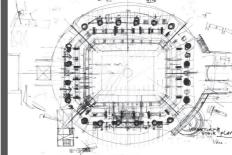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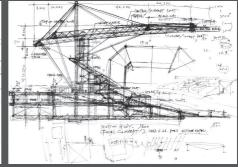




에딘버러공의 펠로우쉽 1999년 월드컵 현장을 방문한 영국의 필립공, 이듬해 The Duke Edinburgh of Fellowship 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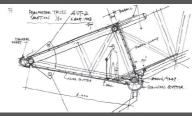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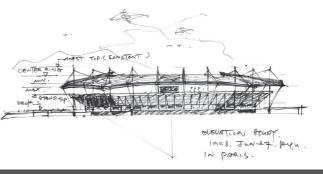
당선확률 10%도 안된다고 할 때 나는 미리 모든 상 세를 다 그리고 있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붓과 펜과 컴퓨터

Brush, Pen and Computer

"펜으로 그리는 선(線)은 굵기가 여일(如一)해서 좋고, 붓으로 그리면 마음에 따라 강약(强弱)과 스피드가 자유로워 좋다. 컴퓨터의 디지털 드로잉도 결국은 아날로그의 세상을 위함이라. 나는 이것을 누구의 '디지로그' 보다는, 간단히 '아나탈'이라 부른다. 붓이 전통(傳統)이고 펜은 서양적(西洋的) 표현이며 컴퓨터는 첨단을 상징(象徵) 한다면, 나의 드로잉 처럼, 나의 건축에서 전통과 하이테크의 굴레는 없다."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 (미국의 녹색도시와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Toward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Focused on the Green City and Sustainable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친환경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네번째 사례로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Master Plan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필자 -정재희 현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 by Chung, Jae-hee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후 건원국제건축과 해안종합건축에서 5년정도 근무를 하였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M.ARCH를 마친 후 SOM을 비롯한 굴지의 건축사사무소들에서 4년 넘게 일을 하였다. Foshan Donghuali Master Plan, Treasure Island Master Plan등의 projects로 2009 AIA Honor Award, 2009 AIA California Council Merit Award, 2009 MIPIM Future Project Award: Regeneration and Master Planning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건축 사, LEED AP(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Accredited Professional)를 소지하고 있다.

목 차

1. 서론: 친환경건축을 위한 통합설계 Introduction: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2. 사례연구

case studies

- 1) Treasure Island Master Plan
- 2) Parkmerced Vision Plan
- 3) Transbay Transit Center Master Plan
- 4)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Master Plan

3. 종합

Conclusion







•

4. 사례연구: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Master Plan

4. case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Master Plan



그림 1, 캠퍼스 전경 투시도



그림 2. 캠퍼스 전경



그림 3. 캠퍼스 전경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Social Sustainabilit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에 위치한 환경과 더불어 연구와 교육에 대한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어 21세기에 미국에 세워진 첫번째 연구 중심 종합대학으로, 2007년 한인 최초의 대학 총장인 강성모(62·미국명 스티브) 총장이 취임한 것으로 한인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UC Merced는 학생수가 1,300명 정도로 학생들이 교수들과 더욱 밀접하게 연구와 공부를 할 수 있고 통합 학문의시대인 21세기의 새로운 대학으로 다양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캠퍼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framework을 세우면서 개발 첫단계에 캠퍼스로서의 완성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다. 따라서 개발팀이 85개 이상의 부지를 검토하는 등 많은 논의 끝에, 1999년 재단이 기부받은 7,030에이커의 부지 중 2,000에이커를 대상으로 SOM이 Campus Master Plan을 계획하였다. SOM은 21세기의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캠퍼스가 되도록 디자인 전략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모든 새로운 빌딩들은 LEED® Silver criteria에 들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는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뿐

만 아니라 social sustainability에 초점을 두고, 이 지역에 대학캠퍼스를 갖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을 고려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One of the most sustainable concepts of all is to design a building that can be used for many decades to come"이라고 SOM의 Managing Director인 Carrie Byles은 언급하였다.





그림 4, UC Merced 의 캘리포니아주 내 위치

그림 5. UC Merced의 Merced시 내 위치





그림 6.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그림 7. Social Sustainability

Cultivating a Sustainable Campus Ecology

Goal

새로운 캠퍼스 플랜은 지역의 경제와 생태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보존 이슈와 어떻게 적절히 융화시키느냐가 관건이었다. UC Merced 캠퍼스가 주변 지역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생태적인 캠퍼스의 모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마스터 플랜과 개별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걸쳐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림 8. 조감도

Summary

Master Plan

Project Facts

Completion Year: 2002 Site Area: 2,000 acres

Project Awards

2009 · Chicago Athenaeum · Green Good Design Award

2006 · SCUP/AIA-CAE · Special Citation

Kolligian library

Project Facts

Completion Year: 2005 Site Area: 46,000 ft² Project Area: 177,000 ft² Building Height: 62 ft Number of Stories: 4

 $\label{eq:programs:main library, student union, administration,} Programs: main library, student union, administration,$

technology facilities

Project Awards

2011 · AIA Sierra Valley · Design Excellence Award

 $2009 \cdot \text{Chicago}$ Athenaeum \cdot Green Good Design Award

2007 · Savings By Design · Energy Efficiency Integration Merit A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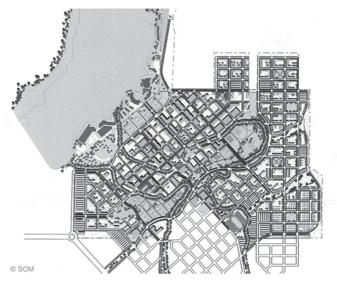


그림 9. 마스터 플랜





그림 10. 캠퍼스 전경 스케치

그림 11, 캠퍼스 전경 스케치



The Master Plan

마스터플랜은 다음과 같은 전략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계획되었다.

- Sustainability
- Adaptability
- Identity
- Movement
- Diversity
- Density
- Whol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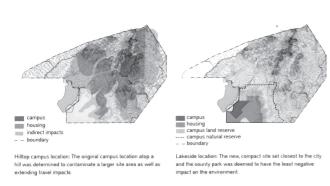


그림 12. 캠퍼스 배치 대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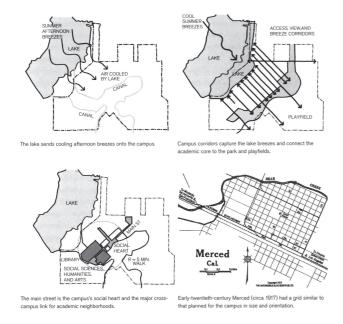


그림 13. 캠퍼스 배치 개념도

무엇보다도 마스터 플랜에 있어 Phase 1단계라는 제약 속에서 캠퍼스의 identity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 캠퍼스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였다.

일단 Vernal Pools의 보존에 따른 사이트 위치 선정이 관건이 었다. 생태적으로 캠퍼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캠퍼스는 대지 남쪽 낮은 부분에 배치되었다.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타운과 요세미티호수, 주변공원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캠퍼스는 central valley town의 grid system을 참고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activity—based zoning을 도입하여 상호 연결되는 행태들을 clustering하여 학생들, 교수,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사회과학, 예술, humanities 등은 도서관 옆 중앙에 위치하여 캠퍼스 코어 부분을 활력있게 하도록 하였다. 반면 스포츠, 전문학교는 바깥 경계에 위치하여 Merced town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utility—based facilities는 연구자들이 장비를 공유하도록 utility corridor를 따라 그룹핑되었다. 캠퍼스 중심부에는 main street을 따라 카페, 식당, 학생시설, 대강의실 등이 집중 배치되어 활발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24시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A Sense of Wholeness"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access, main street 및 academic core 배치, 그리고 다음 단계 공사의 위치까지 세심히 고려한 점이다. 다른 공사들은 완공된 건물 배후나 멀리 떨어져서 진행되도록 하여 학행들이 켐퍼스가 완공되었다는 느낌을 최대한 갖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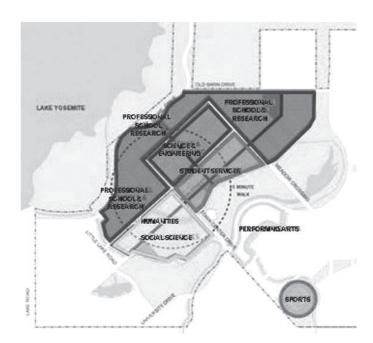


그림 14, activity-based z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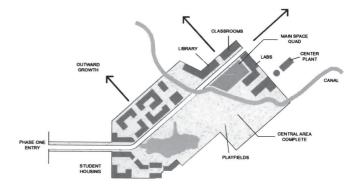


그림 15, campus core





Design Guidelines and Library Information & Technology Center

새로운 캠퍼스를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강한 아이덴티티와 장소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SOM은 "sustainable, forward—looking, and inspiring campus ecology"에 기여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모든 새로운 빌딩들은 LEED® Silver criteria에 들도록 하였다.

SOM은 Thomas Hacker Architects, EHDD Architecture, Fernau & Hartman Architects와 협업하여 Master Plan과 함께 Library &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LITC)(그림16)와 Central Plant(그림17)의 두 빌딩을 디자인하였다. Central Plant는 Fernau & Hartman Architects와 함께 설계하였는데,에너지 보존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구체화한 반면 LITC는 오랜시간을 거쳐 지속가능하도록 매우 flexible한 오픈스페이스와 적응가능한 infrastructure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점을 평가받아LITC는 LEED® Gold certification을 받았다.

LITC 디자인에서 중요한 key point는 강한 장소성 형성을 위한 Central Valley environment와의 관계였으며, 매스 형태를 Merced시의 산업, 농업 건물들로부터 차용하였다. 또한 valley의 온도를 mitigate하는 디자인 전략에서 형태가 도출되었다. 풍부한 햇빛과 요세미티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이용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통풍으로 빌딩과 외부공간간의 밀접한 관계를 창조하였다. 빌딩은 남북으로 배치되고 deep-set façade를계획하여 시각적인 texture와 더불어 그늘, Sierra Nevada를 향한 view을 제공하였다.



그림 16. LITC



그림 17. Central Plant



그림 18. LITC



그림 19. LI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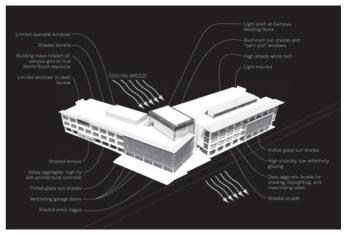


그림 20. LITC 개념다이어그램

특히 야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a sense of vibrancy and security를 제공하도록 고려하였다. 도서관의 glass louver가 낮에는 강한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밤에는 빛을 반사하여 건물이 빛나게 된다. 학생들을 위한 "campus living room"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flexibility와 diversity를 강조하여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학생센터, 클럽, 입학처, 강의실 등을 삽입하였다.

Conclusion

UC Merced Project는 새로운 캠퍼스 조성을 통해 Merced시 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동시에 기존 생태환경이 중시되는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2009 Chicago Athenaeum Green Good Design Award, 2011 AIA Sierra Valley Design Excellence Award, 2007 Savings By Design Energy Efficiency Integration Merit Award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자연환경과 생태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 는 것이 진정한 sustainability라는 개념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 다. 기후를 비롯한 자연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캠퍼스로서 의 identity를 부여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인 학생들과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비록 1단계 개발이지만 "A Sense of Wholeness"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access. main street 및 academic core배치, 그리고 다음 단계 공사의 위치까지 세심히 고려하였다. 진정한 지속가능성, 친환경을 실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설계 프로세스는 우리나라의 캠퍼스 플랜에 도 많은 시사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崮











일본 총합지구환경학연구소(RIHN)와 메가시티 프로젝트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y and nature & Megacties and the Global Environment

방문목적 및 일정

한국교통기술평가원과 다년도 연구협약에 의해 2011년 9월부터 단우도시건축연구소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녹색환경 담론구축을 위한 연구: 건축, 도시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이하녹색 담론 프로젝트)는 "건축·도시 관련 환경·생태이론들의역사적, 철학적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녹색환경의 담론을 구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포럼을 개최하며, 교육과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현재 통용되는 환경·생태이론들의 철학적 개념 정리를 통해 이론적 지형도를 작성하여 새로운 시대의 녹색환경 담론을 마련

둘째, 동·서양의 상이한 자연환경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녹색환경에 관한 개념을 추출하기 위한 동·서양의 역사적 이 론 및 사례연구

셋째, 국내외 녹색환경의 경향을 반영하고 교류하기 위한 국 내외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및 학술 교론

넷째, 녹색환경 담론 구축을 위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도시· 건축 분야의 전문가 및 후속세대 양성교육과 녹색환경 정책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 필자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Han, Dong-soo

약력

한양대 건축공학부와 대학원 건축학부를 졸업하였으며 국립대 만대학에서 석사, 중국 청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인하대 건축학과를 거쳐 2002년부터 한양대 건축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건축역사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 방문시기: 2012년 2월 22일
- 방문자 명단: 김원식(단우 Urban Lab.연구원), 김영철(단우 Urban Lab.연구원), 최영순(단우 Urban Lab.연구원), 류전희(경기대 건축학부 교수), 한동수(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한병수(한양대 대학원 석사과정)



본 연구팀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일본 쿄토(京都)에 위치한 총합지구환경학연구소라는 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최근 이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책임자와 교류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교류회는 모두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우선 총합지구환경학연구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받고 질의, 응답을 하는 연구소 차원의 교류회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본 연구팀의 연구 분야와 직접 관련된 메가시티 프로젝트 책임자로부터그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프로젝트 실무팀 차원의 교류회였다.

총합지구환경학연구소는 물론 이 연구소의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인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모두 우리 건축계에 적지 않은 시사 점이 있어 이 지면을 빌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총합지구환경학연구소의 개요

显토(京都) 키타쿠(北区) 카미가모(上賀茂) 모또야마(本山) 457-4에 위치하고 있는 총합지구환경학연구소(總合地球環 境學研究所, RIHN/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y and Nature, 이하 지구연)는 21세기에 들어서 일본 국내에 처음 설 립된 국립연구소로 그 앞에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인간문화연 구기구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있다.1 자연과학 연구가 중심이 지만 인문사회학 분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통섭연구의 대표적 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2002년 6월 11일 일본 문부성 과 학기술 · 학술심의회의 학술분과회로부터 인문사회과학의 진흥 에 대하여-21세기에 기대되는 역할에 대응하기 위해 당면한 진 흥 방책이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 난 이후, 21세기의 인문사회과 학의 사명으로서 비판적 역할, 문화의 계승과 발전, 현대적 여 러 문제의 해결에 대한 공헌, 지식의 재편성이라고 하는 네 가 지 사항이 지적되었다. 그 결과 본래 제반 학문에 내포되어 있 는 비판적 역할을 발휘해 문화를 계승하면서 현대의 문제해결 에 도움을 주는 한편, 국제무대에 그 성과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식의 재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때 가장 문제가 된 것 은 학문의 세분화라고 하는 모순으로써 이러한 학문의 체제로 는 복잡한 오늘날의 문제를 어느 학문이든 단독으로는 해결책 을 검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책으로서는 분야별 전문영역 간의 협동에 의한 통합적 연구의 추진, 신진 연구자의 육성, 국제적 교류 발 신의 추진, 연구 기반의 정비라고 하는 네 가지 사항이 제안되 었다.

이같은 배경을 가지고 설립된 지구연에서는 현재 인간과 자연계와의 상호작용 고리를 분명히 밝히고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순환, 다양성, 자원, 문명 환경사 및 지구지역학의 5개의 영역 프로그램을 설정한 다음, 각각의 프로그램 밑에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폭넓은 연구의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개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종횡으로 묶어 "총합 지구 환경학"을 구축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그림 1)

제 1 기 연구 프로젝트

2004년도부터 시작된 6년간의 제1기 중기목표와 중기계획에서는 물 순환, 기후 변동, 지하 환경, 생태계, 식료 생산 시스템, 역병, 경관, 문명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 테마군을 연구 대상으로 채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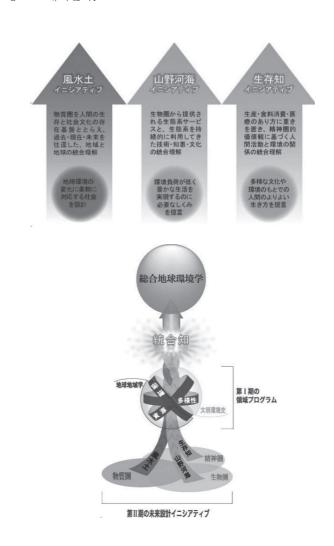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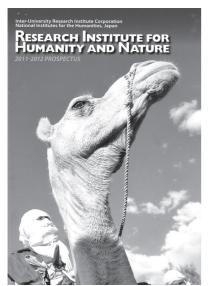


그림 1, 제1기 영역 프로그램과 제2기 미래 설계 주도권 사이의 관계도

¹⁾ 국내에서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이미 2009년 3월 12일 이 연구소와 학술협정을 맺고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공동워크숍에서 유모토 편성국장은 RIHN의 목적과 비전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이헌종 교수는 도서문화연구원의 유산과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사토야마, 마을, 숲에 기반한 경관의 인류학적 비료, 지역공동체의 숲 이용 변화, 천일염전의 생애사, 새만금 갯벌 매립 이후의 어민들의 변화상 등의 발표가 있었으며 발표자와 참석자는 다카까즈 유모토, 이헌종, 사쿠마 다이스키, 김재은, 홍선기, 조경만, 이치카와 마사히로, 나이토 다이스케, 이경아, 김경완 등 국내 6인, 국외 4인이었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의 전경수 교수가 지구연 프로젝트 평가위원장으로 이 연구소에 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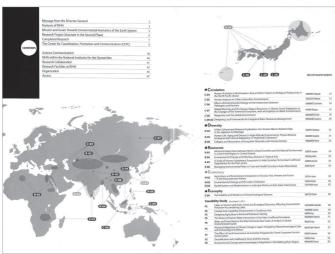


그림 2. 지구연에서 간행하는 2011-2012년 Prospectus 표지와 목차

제2기 연구 프로젝트

제1기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보다 알기 쉬운 범위에서 지구 환경 문제에 관한 총합지(consilience)를 개입시켜 총합 지구 환경학을 구축하며, 2010년도부터 시작된 제2기 중기목표와 중기계획에서는 제1기의 영역 프로그램을 미래 설계 주도권²¹에 연동시켜 지구 환경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에 의한 미래 사회의 디자인을 목표로 삼는다.

이 연구소를 위한 건물의 설계는 니켄세케이(日建設計)의 오카모토 타카시(岡本隆), 테라오카 토시히코(寺岡俊彦), 쿠게 타케히코(久下武彦) 등 세 사람이 담당했고, 시공은 니시마쯔켄세쯔(西松建設)가 맡았으며, 2004년 7월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준공되었다. 건물은 연구와 실험을 행하는 지구연 본관과 연구자를 위한 숙박시설인 지구연 하우스의 두 동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그림 3) 설계의 주안점은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연구 프로젝트 별로 각자의 공간을 구획하여 차단하지 않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대공간을 둠으로서 극대화 할 수 있었으며, 우연히 만나게 하는 회유동선과 중정, 하우스의 라운지 등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그림 4)

설계의 또 다른 주안점은 지구환경을 연구하는 시설에 어울리 도록 에너지 절약형의 건축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환기 와 광량의 조절이 컴퓨터 제어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공조부하 및 조명부하를 약 30% 절감시켰다.



그림 3. 연구동(좌)과 숙박동(우)의 전경





그림 4. 연구동의 중정부분(위)과 대공간으로 이루어진 연구동의 내부(아래)

²⁾ 미래 설계 주도권은 제1기에서 추진된 영역 프로그램의 인식 과학적 어프로치를 횡적으로 통합하여 과학적 어프로치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사람과 자연계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다종 다양한 형태를 파악한 다음, 미래에 가능한 사회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세계 각국에서 목표로 내걸 수 있는 미래 설계의 시나리오(순환형 사회, 저탄소형 사회, 공생형 사회 등)를 검증해 향후 존재할 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제언을 하는 것이다.

igoplus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개요와 연구성과

이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메가시티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임펙트: 그 메카니즘의 해명과 미래 가능성을 향한 도시권 모델 의 제안"으로써 토쿄대학 생산기술연구소의 교수를 겸직하고 있 는 무라마쓰 신(村松伸)이 주도하에 60명의 공동연구원³⁾이 참여 하고 있다. 연구주제의 착안은 지구에 생존하는 인구의 반이 도 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도시는 향후 인류가 살아야 할 가장 중 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지구 환경과 도시가 어 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이 프 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비서양의 온대 및 열대 몬순 지역의 개발도상국, 즉 도시에 관한 제어의 방법이 성숙하지 않 은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첫째, 다양한 학문 영역, 역사, 문화 등에서 메가시티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수법을 확립하고 둘째, 문제 저감을 향한 통합적 해결책을 제시 하며 셋째. 환경. 경제. 사회의 풍부함을 통합한 도시가 존재하 기 위한 모습의 제시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 는 인식 과학과 설계 과학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모두 네 가지 항목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였다.

인식 과학

- -메가시티화 하는 구조와 환경 문제의 출현을 좌우하는 역사 적인 속박 조건의 해명
- -메가시티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특정화와 메카니즘 해명 및 분석 수법의 확립

설계 과학

- -도시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작성 과 가시화된 도시 공간 지리 정보의 통합
- -도시의 마이크로부터 매크로까지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 (stakeholder,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움직임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물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항 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도시의 상황을 평가하는 CSI(City Sustainability Index) 의 개발
- 차세대가 사는 2050년까지의 메가시티 시나리오 2050 의 제시
- 메가시티를 용이하게 하는 메가시티 GIS network의 구상

- 메가시티의 매크로, 메소, 마이크로적인 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교육/계발 프로그램의 개발
- 메가시티 연구 성과, 최첨단 상황을 소개한 메가시티 연구 총서(영어/일본어)의 간행
- 국제기관과 제휴하여 국제적 역할을 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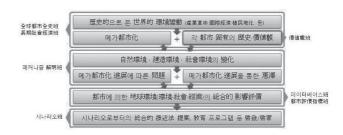


그림 5. 문제해결의 접근방식과 연구조직

연구 조직은 문제 해결의 흐름에 입각해서, 전구도시전 사반(全球都市全史班), 장기적 사회경제사반, 가치관반, 메카니즘 해명반, 데이타베이스반, 도시 평가 지표반, 시 나리오반을 배치하고 그 전체를 통괄하는 통괄반을 두고 있다. 메카니즘 해명반에는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자 연 환경팀, 건조 환경을 취급하는 건조 환경팀, 식량 자원 을 취급하는 식량 자원 소비팀이 있다.

2010년도에는 이러한 연구 조직을 운영하여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올렸으며 2011년에는 자카르타의 중심에 위치하는 치키니(Cikini)라고 하는 고밀도 주거지구를 대상으로 「환경 부하의 저감과 QoL 향상의 양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대학과 함께 학생 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그림 6)

건조 환경의 변화에 의한 환경 부하의 증감 분석 수법 개발

도시화에 수반하는 시가지의 확대에는 많은 건설 활동을 필요로 한다. 본 프로젝트의 메카니즘 해명반 건조 환경팀에서는 자카르타 시내의 총 건재(建材) 재고량 및 건재 사용에 수반하는 CO_2 발생량을 추계하는 것 및 지진 재해 등의 재해에 대한 도시전체의 건조물의 취약도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카르타의 주택 유형 및 건재 특성을 명확히 밝혀냈다.

도시화에 의한 온열 환경 영향 평가

본 프로젝트의 메카니즘 해명반 자연 환경 팀에서는 도시화의 진행이 열섬 문제, 홍수 위험의 증대, 생물 다양성의 열화 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0년도는 자카르타 교외에 연구 대 상지를 설정해 30년간 발생한 논의 황폐화나 택지로의 전용, 건 축물의 증가, 수목의 감소 등을 인터뷰나 실측, 위성 화상 해석,

³⁾ 공동연구원은 주로 건축사, 도시사의 전공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종교학, 인류학, 생태학, 환경학, 교통학, 수리학, 역사학, 인구학, 경제학, 농수산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lacktriangle

3차원 CAD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이 러한 자료는 논을 기반으로 하는 열대 지역이 도시화 되는 현상, 지표면 온도가 크게 상승하여 열섬 현상을 가속시키는 메카니즘 의 해명에 연결시킬 수 있었다.

City Sustainability Index(CSI) 구축을 위한 문헌 검토 분석

도시 평가 지표반은 City Sustainability Index(CSI)를 구축하는 전 단계의 연구로서 기존의 주요한 Sustainability Indicators를 검토했다. 포함된 지표는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ES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EPI) 등 20종류 미만이다. 도시 평가 지표로 적용 가능한 것을 평가, 분류함으로써 도시의 평가 지표로 필요한 5개의 특성을 분명히 했다.



이 프로젝트가 표방하는 특색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도시 인식의 통합성이다. 도시의 지구 환경 문제(로컬, 글로벌)를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그 문제를 특정화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구의 통합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홍수의 다발, 열섬의 발생, 생물 다양성의 감소, 생태계의 변화, 온난화, 도시의 취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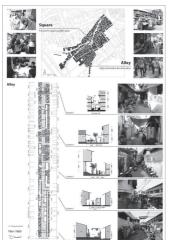




그림 6.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메가시티 디자인 스튜디오의 책자 표지와 주요 내용

계층 차이의 확대에 대한 복수의 문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메카니즘을 생태학, 하천 공학, 건축 계획학, 도시 사학, 유 통 사회학, 수산학, 도시 사회학 등 다수의 학문 분야에 의해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인식 과학과 설계 과학의 역사적, 문화적 시점을 중시하

는 것이다. 도시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기존의 국제적인 연구는 역사적 요인, 문화적 요인, 생태학적 요인을 경시하는 한편, 상대화하지 않고 개별적 억압 조건으로서 이용했다. 여기서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구 환경 문제가 역사적 요인, 문화적 요인, 생태학적 요인들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역사 연구자, 사회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셋째, 설계 과학에 있어서의 통합이다. 도시의 지구 환경 문제라고 하는 복합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는 없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의 수법을 묶어서 대처하고 이러한 방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즉, 근대과학(자연과학, 공학, 농학, 사회과학 등)에 의한 직접적 수단과함께 기반적 수단(교육, 계발)을 이용하는 동시에 생태적으로 그도시에 적합한 지역의 지혜를 발굴하고 이를 다시 이용한다. 대상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적인 물건에서부터 도시 전체, 나아가 그것을 국제적이라고 하는 매크로한 물건에도 적응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스케일에 대처하는 수법을 개발한다.

맺음말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구연과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우리 연구팀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서 일본의 학문이세계화의 시대에 어떻게 변신해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있었다. 물론 짧은 시간의 방문과 토론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국가의 발전방향을 내향적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세계무대에 올려놓고고민하며 주도권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보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안정된 지식인 집단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우리도 최근 학제간 연구, 융복합 연구, 산학연 연구 등의 명 칭으로 연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괄하여 지속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전문적인 리더 집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구연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우리 건축, 도시분야에서도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근본을 유지시켜주는 안정된 집단과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圖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8.9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방법

- 주소입력: http://m.kira.or.kr

- 포털사이트: 대한건축사협회 검색후 클릭시 자동연결

- QR코드 인식 후 접속

○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방법

· 메인 상단 탭: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의 총5개 게시판을 탭으로 링크,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해당 게시판의 내용을 볼 수 있음.

· 메인게시판 : 각 게시판의 최근내용을 보여줌.

· 하단아이콘: 대한건축사협회장의 인사말, 협회설립목적/연혁, 조직, 주요사업, 역대임원, 회원검색, 알림광장, 회원가입안내 등의 내용을 각각의 아이콘을 터치함으로서 볼 수 있도록 구현.

· 관련 사이트 : 각 회사의 로고를 회전하는 배너형식으로 구현,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 오시는 길: Daum지도를 연동하여 확대축소가 가능한 지도로 표현

· PC버전보기 :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대한건축사협회의 PC버전 홈페이지로 이동



|QR코드 인식방법|

큐알(Quick Response)코드는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바코드와 비슷한 것인데, 활용성이나 정보성 면에서 기존의 바코드보다는 한층 진보한 코드 체계이다. 아래 QR코드는 대한건축사협회모바일 홈페이지의 주소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히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다.

O QR코드 인식방법

스마트폰의 QR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QR코드를 읽어 들이면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입력 없이 바로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2012 ALACE Convention

대한건축사협회(KIRA)는 지난 2011년 11월 25일~11월 30일 우리협회와 협약체결에 따라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ALACE: Association of Laos Architects and Civil Engineers)를 친선 방문한 바 있다. 이 때 ALACE는 2012년 2월 23일(목)~2월 25일(토)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위앙짠, 현지발음) Lao-ITEC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2년도 ALACE 컨벤션 및 총회에 본 협회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였고 이에 답방하게 되었다.

ALACE 컨벤션 및 총회는 3년에 한번 개최되는 전국규모 건축 사대회로 자재 및 작품 전시회, 학술대회, 건축상 시상, 신임 회 장단 선출 등의 행사로 구성된다. 이번 대회에는 교류단체인 본 협회(KIRA)뿐 아니라 싱가포르건축사협회(SIA) 및 태국 건축사 협회(ASA)가 초청되었고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회장 (임기 2011-2012)인 쿠니히로 죠오지(国広, George) 씨도 초청 되었다.

금번 2012 ALACE 컨벤션에서 우리 협회 측은 "디자인과 매력의 도시, 서울의 급속한 도시 개발 및 청계천 복원에 관한 사례발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라오스의 주요 건축대학인 루앙프라방대학 및 비엔티엔대학과는 UIA국제기준에 맞는 건축학교육 인증에 관한 회의를 했고, ALACE 집행부의 직전 회장 및 신임 임원진과 우리 협회는 향후 교류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또한 우리협회 대표단은 비엔티엔 시청을 공식 방문하여 부시장을 공식 접견했다.

협회 대표단으로는 강성익 회장, 김지덕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조인숙 국제위원회 위원과 김효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전 서울시 주택본부장), 임창복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원장(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윤호중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장, 안용태 서울특별시청 건축정책팀 주무관 및 유창수 전 서울특별시장 보좌관이 함께 했다.

대회 첫날 자재전시회 개막식에서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Lao PDR)의 부총리(the Deputy Prime Minister) 쏭싸밧 렝싸받(Somsavath LENGSABAD) 씨께서 리본커팅 후 각 부스를 일일이 돌아보며 악수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참여회사들을 격려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에 건설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ation) 차관, 분찬 씬타봉(Bounchanh SINTHAVONG, 토목학 석사) 씨가 계속 동행했다. 전시회 및 대회 주제는 "도시개발에서 라오스건축의 가치(The Value of Lao Architecture in Urban Development)"였다. 또한 렝싸받 부총리께서는 대회 마지막 날의 폐막식 및 건축상 시상식에도 참여하여 시상 및 힘찬 연설로 라오스 건축사들을 뜨겁게 격려하셨다.







① 협회 대표단 : 김효수(전 서울시 주택본부장) 기조강연 후 / 유창수, 윤호중, 임창복, 강성익, 김지덕, 쌩캄 피니트, ALACE treasurer, 김효수, 폰사이 수티퐁, 데싸파라미 아파이, 분찬 씬타봉, ASA, 조인숙 ② 조인숙, 김지덕, 임창복, 강성익, 김효수 ③ 자재전시 관람 : 강성익 회장과 라오스 부총리



김효수 전 주택본부장의 서울시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조 강연에서는 개발의 문턱에 서 있는 라오스 건축사들의 지대한 관 심과 질문공세가 있었다.

시간상 다 대답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을 할 것을 제안했다. 강연의 일환으로 청계천 개발의 사례를 동영 상으로도 보여주었고 강연이 끝난 후 오후 세션 시작 전 2017년 세계건축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회에서 제작했던 서울에 관한 다이내믹한 동영상을 상영했다.

임창복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원장께서는 건축학교육 인증관련에 대해 회의를 직접 주제하시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 서 각 건축대학 학장들께서 무척 고마워하는 한편 한국에 인증을 요청하는데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것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귀국 후 임창복 원장님께서 검토한 바 우선 인증 자체 보다는 교과과정에서의 협력이나 시설 및 정 보 자원의 협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인증원 내부적 검토 를 거쳐 두 대학에 4월말이나 5월 초에 한 개 대학에서 1-2명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우선 교류를 시작해 보고자 초청의 메일을 보 내는 신속한 조치를 하셨다.)

ARCASIA—KIRA—SIA 및 ALACE 합동회의는 ARCASIA 회장 쿠니히로, ALACE 집행부의 쌩캄 피니트(Sengkham PHINITH) 직전 회장 및 폰싸이 쑤티퐁(Phonexay SOUTHIPHONG) 신임 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진과 우리 협회 및 싱가포르 대표단이 참석하여 ALACE의 2011년 활동사항 보고 및 각국의 향후 교류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ALACE는 건축사 및 기술사 단체이므로 건축사가 회장이 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아닐 경우 수석 부회장은 건축사라야 한다는 규칙을 세 웠다는 보고가 있었다. 신임 임원들은 대개 영어를 잘 했고 불어 나 러시아어 및 인근 태국어 등도 구사했다.

KIRA는 세계유산도시 루앙 프라방 건축사회와 우리 강원도건 축사회의 직접교류 체결에 대해 3월 강원도지회 총회시 논의할 것을 시사했으며 금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대한건축사협회 컨벤션 및 총회에 ALACE를 공식초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날 있었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과 두 대학과의 인증에 관한협의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대회 마지막 날 폐막식에서는 전임 회장이 신임 회장에게 협회 기를 이양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임기를 물려주고 신임 임원의 소 개와 아울러 부총리의 격려사 및 건축상 시상과 신임 부회장의 레졸루션 보고가 있었다.

건축상 시상에서 괄목할만한 점은 건축사들은 가장 라오스적 인 건축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과 협회는 그런 작품을 뽑 아 시상했다는 점이며 무엇보다도 이런 시도가 라오스 건축역사 상 최초라는 점이다.

비엔티엔 시(市) 부시장 공식 접견에서는 한국 특히 서울특별시의 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이나 건축사들은 청계천 물길 완공 시 서울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특히 부시장(Vice Governor of Vientiane) 케오필라반 아파이랏(Keophilavanh APHAYLATH) 씨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고, 스스로가 건축사로 직전 ALACE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자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유학 중













④ 루앙프라방의 수파누봉 대학 및 비엔티안 대학 학장단과 임창복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장 및 협회 대표단 / 좌: 피지트 시하라야, 다싹 우텐타반야, 비라 아놀락, 자야퐁 퐁빌리 건축학부장(SU) (스크린부터) / 우: 강성익 회장, 임창복 원장, 조인숙 국제위원, 김지덕 고문 ⑤ 임창복 원장, 비엔티안 대학(BU) 학장 다싹 우텐타반 이(Dean, Dasak Outhenthapanya) ⑥ 임창복 원장, 수파누봉 대학(SU) 학장 비라 아놀락(Vira Anolac) ⑦ 강성익 회장, 폰싸이 쑤타퐁 ALACE 신임 회장 ⑧ ALACE, ARCASIA, KIRA ⑨ KIRA, SIA

이며 여식은 건축학도인지라 대화 중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건축 및 도시탐방으로는 23일 전시회 개막식 전 세 곳, 개막식 행사 후 오후에 한 곳을 방문했고 저녁에는 잠깐 여흥 시간도 있 었다. 25일 귀국 전 다행히 건축상 수상작도 한 군데 둘러볼 수 가 있었다.

참고로 라오스는 8세기부터 남하해 온 라오족(族)이 14세기 초루앙프라방을 중심으로 란쌍 왕국(Lan Xang: 100만 마리 코키리라는 의미)을 세우고 18세기에는 비엔티엔(Vientiane), 루앙프라방(Luang Pravang) 및 참파싹(Champasak)으로 왕국이셋으로 나뉘었다가 19세기말 프랑스 보호령으로 편입, 2차 대전때 잠시 일본의 점령, 1945년 다시 프랑스 점령 후 1953년 독립, 1975년 이래 내전을 정리 사회주의 체재 후 1988년 문호를 개방하여 오늘 날에 이르며 인구의 95%가 불교인 나라다.

메콩강 상류의 비엔티엔시는 라오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화려한 도시로 인구규모가 약 80만 정도 되는 도시이며 강 건너편의 태국과 마주보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잠시 짬을 내어 파리 개선문의 라오스 판인 "빠 뚜싸이(Patuxai: Victory Gate, 1969년 건립)"와 라오스 국가상 징물로 불(佛) · 법(法) · 승(僧)을 상징하는 3층 스투파 "파 탓 루 앙(Pha That Luang: 위대한 불탑이라는 뜻, 초창 1566년, 19세기 복원)" 및 18세기말 시암 왕국(Siam)의 침략 시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고 남아서 비엔티엔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왓 씨싸켓 (Wat Si Saket, 현 씨싸껫 박물관, 1818년 건립)"을 둘러보았다.

개회식 오후에는 비엔티엔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불교와 힌두교의 원리들을 형상화해서 조각 전시한 부처공원 "씨엥 쿠안 (Xieng Khuan: Buddha Park라고도 부른다. 1958년 조성)"을 탐방했다.

일과 후 저녁 여흥시간에 특기할 만한 것은 가·무·악(歌舞樂)을 즐기는데, 우리의 호스트인 쌩캄 피니트 회장님의 섹소폰 연주는 가히 수준급이며 불교적인 음악 반주에 맞추어서 남녀가 마주보고 거리를 유지하며 돌면서 맑고 밝은 표정을 하고 추는 춤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양손 모두 엄지와 검지로는 동그랗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불교의 삼보(三寶)인 불·법·승의 수행을 의미하며 손을 돌리면서 춤을 추는데 남자 대 남자 또는 남자 대 여자는 마주 춤을 추는데 여자 끼리는 추지 않는다고 한다. 여흥 자체도 수행의 일부로 삼는 불교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

신임 회장단이 주제한 24일 저녁 만찬에서는 한 소수민족의 가무악을 선보였다. 한국이 설립한 한·아세안 오케스트라의 일원인 라오스의 전통 악기가 낯설지는 않았지만 소수민족 무동(舞童)들의 춤은 인상적이었다.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은 약 68쪽(族)이나 된다고 하며 저마다 다른 구전언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초대에 감사한다는 의미의 답례로 우리 협회 강성익 회장께서 멋진 하모니카 연주를 했고 그에 맞추어 대표단은 한국노래를 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건축상 수상작 중 하나를 탐방할 기회를 가졌다. 우선 건축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2005년 8월 ALACE를 창립한 후 협회는 자국 건축 발전에 기여한 건축사 및 기술사들에게 어떻게 상을 주는가가 주요과제 중 하나였고, 기본적으로 ARCASIA상 범주에 걸 맞는 건축상을 제정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2012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루앙 프라 방과 비엔티엔 두 도시에서 지난 10년간 지어진 작품 중 20개를 선정하여 심사한 후 8개의 뛰어난 작품 및 연구결과에 대해 라오스 최초의 건축상을 시상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보수 및 활용부분에서 루앙프라방의 한 호텔이 선정되었는데 수리 및 증축 설계













⑩ ALACE 신임 집행부 ⑪ 건축상 시상 ⑫ 신임회장에게 ALACE기(旗) 이양 ⑬ 강성익 회장의 답례사 ⑭ 강성익 회장은 하모니카 및 연주단 반주에 맞춰 한국노 래로 답례했다. ⑮ 강성익 회장과 케오필라반 아파이랏 부시장 좌담



는 스페인출신 프랑스건축사 "프랑수와 그렉(François GRECK)"의 작품으로 외국건축사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또한 수상작 상당수가 건축사 자신이 건축주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연구과제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토목기술사의 연구결과인 데 연구 주제는 자국어로 구조해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현재 비엔티엔 시는 약 15층 정도까지의 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바 철근콘크리트 구조건물에 강구조 보강을 어떻게 하는가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우리 대표단이 탐방의 기회를 가진 건축상 수상작은 비엔티엔 시내의 "그린파크 부띠끄 호텔(Green Park Boutique Hotel)"로 설계자는 싹파쑤스 판라이봉(Sackpaseuth PHANRAJVONG) 이라는 젊은 건축사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사유는 부띠크 호텔이라는 개념을 라오스에 처음 도입했다는 점, 우수한 토지이용, 건물 배치 및 경관처리의 우수성, 각 채마다 건축 및 실내설계에 현대적 라오스의 정체성을 보여준 점, 환경친화적인 설계(최대의 자연채광과 자연환기) 및 자국자재를 최대한 사용했다는 점으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태국의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다년간 후올해도 다시 방문 예약이 되어있다는 호텔은 면적 대비 적정규모보다 적은 숫자의 객실로 여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당히 쾌적한 곳이라 설계한 건축사의 직접 안내에 따라 일일이 둘러본후 탐방자 모두 개인 휴가 시 다시 방문하고 싶어 했다. 젊은 건축사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아주 빛내고 있었다.

이번 탐방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나눔과 순응의 문화라고나할 수 있겠다. 쌩깜 피니트 회장께서는 라오스 건축계의 아버지이시다. 일찍이 프랑스에 오랜 유학을 한 후 귀국하여 건축교육에 몸 담으셔서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또 정부요직에도 계셨고(건설교통부 장관 역임), 2005년 ALACE를 설립하여 두 번연임 회장을 하시고는 3대 회장 자리를 제자인 폰싸이 수띠퐁에게 물려준 것이다. 초대 손님에겐 본인소유의 반사나 호텔 그룹(Vansana Hotel Group)의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대개는 자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유산 도시 루앙프라방까지동행하신다(우리대표단은 이번에는 KIRA 총회 때문에 컨벤션후 바로 귀국했고 쿠니히로 회장은 루앙 프라방으로 향했다). 이런 베품은 불교 덕목의 하나로서 무주상 보시(과보를 바라지 않는 나눔)의 실천이다.

ALACE가 2011년 베트남 다낭 회의에서 ARCASIA에 18번 째 회원 협회가 되면서 우리 협회와도 공식교류가 이루어졌고 18개 국의 회원 협회 중 우선순위 1위로 KIRA를 초대한 것에는 남다른 인연이 있다. 반사나 리버사이드 호텔을 운영하는 장녀의 남편인 맏사위가 건축자재 분야를 다루는 한국인 젊은 사업가이다. 어린 한국 외손자가 너무 귀여워서 늘 자랑하신다. 호텔에서는 특히 한국관광객이 많아서인지 수준급의 김치와 한국식 반찬

이 제공된다. 또한 도시민 모두가 욕심 없이 착하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듯이 보였다. 무엇보다도 KIRA 대표단을 일정 차질 없이 철저하게 관리해주신 데싸파라미 아파이(Desaparamy APHAY)씨께 감사드린다.

서서히 개발의 붐이 불기 시작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구자본의 유입과 함께 국적불명의 건축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지역의 문화를 존중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협회 집행부는 계속 바뀌어 가는데 환대에 어떻게 보답할지 또한 걱정스런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는 대한민국 건축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에 가장 잠재력이 높은 대상국가의 하나로서, 라오스와의 국제교류활동은 향후우리나라 건축사의 아시아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참고로 쿠니히로 회장께서 라오스 탐방일기를 시시각각 유투 브에 올려서 부분적으로 영상과 함께 볼 수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여기 첨부한다. 圖

〈조인숙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ARCASIA 회장 George Kunihiro의 라오스 여행일기 (oneasiayes: http://www.youtube.com/user/oneasiayes?email=share_video_user)

1. ラオス旅日記 その1_2012.02.22

http://youtu.be/PpfnmrJiZ5E

ラオス・ビエンチャン到着の第一印象とメコン川を見て (라오스 비엔티엔 도착 최초의 인상과 메콩강을 보며)

2. ラオス旅日記 その2_2012.02.23

http://youtu.be/nveBGCgtMko

ブッダパーク, ALACE建材展, ステューパ, KIRAメンバー, ラオス副首相来訪, KIRA, ALACE, ARCASIA, JIA, Stupa, Buddha Park, George Kunihiro (개선문, 스투파, ALACE 건축자재전시, KIRA 사절단 라오스 부총리)

3. ラオス旅日記 その3_2012.02.24

http://youtu.be/k4Jz_ogGTnk **メコン川沿いにある広場と町並みを歩く。** (메콩강 연안의 광장과 마치나미를 걸으며)

4. ラオス旅日記 その4 2012.02.25

http://youtu.be/4drtRpfful8

ラオス建築家・エンジニア協会総会の最終日。 ALACE建築作品優秀賞授与式など。

(ALACE 건축작품 우수상 수여식 등)

5. ラオス旅日記 その5_2012.02.26

http://youtu.be/bOZMUrbwnRg

世界遺産都市Luang Prabhangのナイトマーケットと早朝の托鉢(たくはつ)風景。

(세계유산도시 루앙 프라방 야시장과 새벽 탁발 풍경 - 쿠니히로 회장과 쌩캄 회장)

※ 본 보고서는 필자가 제출한 원고를 가감없이 게재하였습니다.

(

「KOREAN ARCHITECTURE 2009-2010」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할인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회원 및 건축 실무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도서를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동안 월간 「건축사」에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현재의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한 「KOREAN ARCHITECTURE 2010」 등의 도서 잔여분에 대하여 할인판매를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KOREAN ARCHITECTURE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500여쪽 / 가격: 40,000원 \Rightarrow 3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가격: 30,000원 ⇒ **20,000원(배송비 포함)**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KOREAN ARCHITECTURE 2010」 2권 세트 구매시 **할인가 40,000원(배송비 포함)**



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가격: 35,000원 ⇒ **2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계좌번호 : 기업은행 667-002597-04-232 (대한건축사협회)※ 구입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2~4)



협회소식

제3회 이사회

2012년도 제3회 이사회가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친환경건 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건, 국토해양부 위임 과제 수행의 건,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의 건, 2012년 도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모집 응모 의 건, 대의원 선출관련 권고서신 발송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 안건으로 2012년도 위원회 설치 및 담당임원·위원장 선임의 건. (가칭)건축사교육원 준비자금 차입의 건. 건축사연금제도 연구용 역 예산 재의결의 건, 2012년도 미국건축사협회(AIA) 컨벤션 참 가의 건, 건설기술자(사망자) 미납관리비 결손처리의 건,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 건, 비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자문위원 위촉의 건, 추대회원 추가 추대 추인의 건, 편집국장 선임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건
- 친환경TF팀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추진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2호 : 국토해양부 위임 과제 수행의 건
 -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되, 협회의 의견과 소형 건축사사 무소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 ▷연구용역 시행에 따른 기여방안(연구용역비 지원 등)에 대하 여 법인건축사협의회와 사전 협의
- •제3호 :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
 -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과 관련한 3가지 건축법시행 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참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함.
- •제4호: 2012년도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원안대로 집행하기로 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회장단에 보고하기로 함
- 제5호 :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모집 응모의 건
 -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6호 : 대의원 선출관련 권고서신 발송의 건
 - 원안대로 발송하기로 함.

▲부의안건

•제1호의안 : 2012년도 위원회 설치 및 담당임원 · 위원장 선

임의 건

- 오늘 논의된 사항과 이사들이 제출한 담당임원 선임 양식 을 참고하여 위원회 설치, 담당임원 및 위원장을 선임토록 회장에게 위임함.
- 제2호의안 : (가칭)건축사교육원 준비자금 차입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건축사연금제도 연구용역 예산 재의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2012년도 미국건축사협회(AIA) 컨벤션 참가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국토해양부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도 미국건축사협회 컨벤션에 참가토록 요청하기로 함.
- 미국건축사협회와의 교류시 건축사협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함.
- 제5호의안: 건설기술자(사망자) 미납관리비 결손처리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 건
- 회원교류TF에서 협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예산범위내 에서 집행토록 회장에게 위임함.
- •제7호의안: 비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 조형식 이사를 비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함.
- 제8호의안 : 자문위원 위촉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9호의안: 추대회원 추가 추대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0호의안 : 편집국장 선임의 건
- -조충기 이사를 편집국장으로 선임함.

2012년도 시ㆍ도건축사회 정기총회

본협회 16개 시·도건축사회의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9일 광주 광역시건축사회를 시작으로 개최돼 2012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승인, 신임임원 선출 등 주요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각 건축사회별 총회 부의안건 등 주요 처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3. 22(목)

▷개최장소 :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참석인원: 재적회원 2,232명 중 390명

▷의결내용

•제1호의안 : 회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권 관리업무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서울시건축사회 소규모 건축물 감리업무 공영제 도(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2011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12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2012회계년도 감리업무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이사 8인 : 회장에게 선출을 위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결의함
- 감사 1인 : 단독 후보로 등록한 신제흥 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출함
- •제7호의안 : 대의원 개선의 건
- 서울회에서 전체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대의원 선임신청서를 받아 이사회에서 구성한 "대의원선출위원회"에서 각 구별로 배정된 인원에 맞춰 선출하는 방안으로 대의원을 개선키로 결의함
- 제8호의안 : 잔여임기 대의원 개선의 건
- 잔여임기 대의원 42명에 대한 개선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거수로 표결한 결과가 찬성(139표), 반대(89표)로 개선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나, 임기 2년인 본협회의 대의원을 잔여임기 중에 시·도건축사회 총회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본협회에 정관 적용 가능여부를 질의하여 회신결과에 따라 집행여부를 결정키로 함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3, 21(수)

▷개최장소 : 농심호텔 2층 대청홀▷참석인원 : 재적회원 680명 중 366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FY-2011 수지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FY-2011 결산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FY-20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가칭)'부산건축사회관'건립 추진 계획(안) 승인 의 건
-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총회를 통해 계획안을 승인받는 것으로 수정통과됨 (※ 참고 : 거수 256명 중 188명 개의 안 찬성)
- 제5호의안 : 임원 선출(이사 7인, 감사 1인)의 건 〈선출된 임원 명단〉
 - 이사 7인 : 회장에게 조건부 위임하되, 다양한 회원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고려키로 함

- 감사 1인 : 김정관 회원

• 제6호의안 : 대의원 선출(15인)의 건

- 대의원 15인 : 강권호, 김수자, 김정관, 노상철, 배호진, 손성대, 손욱, 오철호, 윤수근, 이기원, 이종협, 정춘국, 조헌태, 주영원, 하정용 회원

■대구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3. 22(목)

▷개최장소 : 대구 가창스파밸리(1층) 애지앙 (대회의장)

▷참석인원: 재적회원 648명 중 539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11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2012회계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1회계년도 특별적립금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4호의안: 2012회계년도 특별적립금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5호의안: 임원·대의원 개선의 건

〈선출된 임원 명단〉

- 이사 6인 : 회장에게 위임함

- 감사 1인 : 김창수 회원

• 제6호의안 : 대의원 선출(14인)의 건

- 대의원 14인 : 회장에게 위임함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3, 27(화)

▷개최장소 : 하버파크 호텔 2층▷참석인원 : 361명 중 271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개정 이 거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위(수)탁 협약서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3호의안: 경조비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가칭)지역건축사 친목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과 (가칭)건축사동호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5호의안: 201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추가경정 및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2012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임원 (이사 5인, 감사 1인) 및 대의원(10인) 개선 의 건

〈선출된 임원 명단〉

- 이사 5인 및 대의원 10인 : 회장에게 조건부 위임(학연, 지연, 나이 등 적절한 안배 조건)

- 감사 1인 : 정재남 회원

•기타 의안: 전 사무국장 소송진행 관련 협의 건

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당사자 합의 요청시 집행부에 협의 권한 위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2, 29(수)▷개최장소 : 신양파크호텔▷참석인원 : 267명 중 174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11년도 일반 ·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2012년도 일반 ·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전 – 워안대로 승인함

•제3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선출된 임원 명단〉

- 이사 6인 : 강석훈, 강필서, 강현구, 안길전, 이혜란, 한명석 회원

– 감사 1인 : 이광천 회원

〈선출된 대의원 명단〉

- 강필서, 김곤, 김동선, 이광천, 이창율, 정명철, 정재한, 최경양 회원

■대전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3. 15(목)

▷개최장소: 제주도 한화리조트 1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345명 중 186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11년도 수지결산(안)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2년도 수지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함제3호의안 : 임원 개선

〈개선된 임원 명단〉

- 이사 3인 : 박태식, 임성국, 전태호 회원 (신임)

- 감사 1인 : 권이원 회원 (유임)

• 제4호의안 : 대의원 선출

- 윤석동 회원 (신임), 이기수 회원 (유임)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3, 21(수)

▷개최장소 : 울산MBC 컨벤션 2층 아모레홀

▷참석인원: 219명 중 172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1년도 수지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2호의안: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3호의안: 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선출된 임원 명단〉

이사 8인: 회장에 위임감사 1인: 임채룡 회원〈선출된 대의원 명단〉

-대의원 9인 : 회장에 위임함

■경기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3. 15(목)

▷개최장소: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층 경기홀

▷참석인원 : 1,054명 중 506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1년도사업 및 일반회계 수지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 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3호의안: 협회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제4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선출된 임원 명단〉

- 감사 1인 : 송기선 회원

■강원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3, 29(목)

▷개최장소 :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2층 메도우홀

▷참석인원: 217명 중 129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1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3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선출된 임원 명단〉

- 이사 7인 : 강홍구, 주명호, 이상훈, 최이선, 박정훈,

박재문, 서강선 회원 - 감사 1인 : 김영철 회원

〈선출된 대의원 명단〉

- 대의원 5인 : 김종오, 안득수, 전영석, 정부교, 최성두 회원

■충청북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3. 16(금)

▷개최장소 :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본관 4층

▷참석인원 : 287명 중 124명

▷의결내용

•제1호의안: 2011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3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선출된 임원 명단〉

- 이사 5인 : 회장에게 위임함

- 감사 1인 : 오긍균 회원

〈선출된 대의원 명단〉

- 대의원 8인 : 김성진, 김원식, 박성인, 이한식, 장영신, 지승호, 최동철, 최성기 회원

■충청남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3. 15(목)

▷개최장소 :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럭시홀

▷참석인원 : 326명 중 205명

▷의결내용

•제1호의안: 2011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2호의안: 2012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3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선출된 임원 명단〉

- 이사 5인 : 회장에게 위임함

- 감사 1인 : 유재창 회원

〈선출된 대의원 명단〉

- 대의원 9인 : 회장에게 위임함

■전라북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3, 28(수)

▷개최장소 :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

▷참석인원 : 290명 중 132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11년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2호의안: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3호의안: 임원 선출의 건
이사 7인: 회장에게 위임함
감사 1인: 이진희 회원

- 대의원 선출 : 회장에게 위임함

■전라남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3, 20(화)

▷개최장소 : 전남 여수 소호동 디오션리조트

▷참석인원 : 238명 중 105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1년도 수지결산(안)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이사 3인 : 정종민, 이강근, 이정심 회원 (연임), 최세호

회원 (신임)

- 감사 1인 : 손병완 회원 (신임)

• 제4호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 대의원 선출 : 김정, 이환영, 심우석, 탁기봉, 김정현,

정영법 회원

■ 경상북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3, 15(목)

▷개최장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참석인원 : 440명 중 323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11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됨.

•제2호의안: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됨.

•제3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부회장 1인 : 임일중 회원

- 감사 1인 : 권상기 회원

- 대의원 선출 : 회장에게 위임함

• 제4호의안 : 신입회원 입회비 책정의 건

- 추후 이사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키로 가결됨.

• 제5호의안 : 신입회원 입회비 책정의 건

– 상조회 결산, 예산 및 발전기금은 원안대로 가결됨.



■ 경상남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3, 21(수)

▷개최장소 : 창원호텔 3층 목련홀 ▷참석인원 : 475명 중 344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2011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1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수지결산(안) 승 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12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수지예산(안) 승 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5호의안: 임원 · 대의원 선출의 건

- 이사(6인) 및 대한건축사협회 대의원(18인)은 회장에게 위임

■ 제주특별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3. 23(금)

▷개최장소 : 제주KAL호텔 2층 회의실

▷참석인원: 150명 중 89명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 개정의 건

일부 수정 승인 (법제위원회 신설 부결, 위원회 성원 1/2, 의결 2/3)

•제2호의안: 임원선거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건축물의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운 영규정 개정의 건

- 일부 수정 승인 (조문시설 조건 승인)

• 제4호의안 : 2011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6호의안: 임원 ·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이사(4인) 및 대의원(4인)은 회장에게 위임

- 감사(1인) : 오제호 회원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제2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차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신규 심시등록의 건
 - 신규등록 추가접수는 하지 않기로 하고, 수여식은 계속교육과 함께 5.22(화)에 개최(예정)하며 계속교육의 주제 및 연사에 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함.
- 제2호 : 한-일 간 건축사자격상호인정 협정체결의 건
 - 현재까지 일본 측과 논의해온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와 논의키로 함
- 제3호 : 2012년도 APEC 등록건축사 계속교육 시행계획의 건
 - 현행 'APEC 등록건축사 계속교육의 종류 및 인정기준표' 에 위원들이 의견을 첨삭하여 취합키로 함.
 - 현재의 APEC 등록건축사 계속교육의 종류 및 인정기준에 전문성 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황두진 위원)
- 제4호 : 제3회 APEC 등록건축사 등록갱신의 건

|결 과 : 등록갱신 추진일정은 원안대로 추진키로 협의

 등록갱신 기준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기준을 고려하여
 APEC 등록건축사 등록갱신에 관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 가 있음

▲기타사항

- 제3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위원회 임기(12.5월) 이전까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해양 부와 협의 후 각 단체에 결과를 전달키로 함.
- 제4차 중앙이사회 참가여부 및 단체별 예산지원을 위원들이 소속단체와 협의 후 결과를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키로 협의함.

■ 제5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제5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22일 협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등록업무 준비자금 차입에 관한 건
- 2차 차입금 2억3천만원을 위원회(안)으로 제4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 제2호 : 건축사등록업무 홍보(건축사지 게재)에 관한 건
 - 건축사등록업무 홍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① 건축사지 · 건축문화신문 · 건축사신문(부산) · 건축문









화사랑(호남)에 각 1회씩 광고 게재

- ② 리플렛 제작 후. 각 시 · 도건축사회 배포
- ③ 포스터 제작 후. 대학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
- ④ 세움터 등 유관기관에 공지사항 게시(팝업 등) 협조요청
- ⑤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지자체에 안내공문 발송

■ 제6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제6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등록업무 온라인시스템 개발에 관한 건
- 건축사등록업무 온라인시스템에 연결할 전자결제프로그램종류를 계좌이체와 가상계좌만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기타사항

- 건축사자격등록카드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건축사자격등록카드 디자인은 조인숙 위원이 담당하기로 결정함.

■제1회 건축사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

제1회 건축사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실무교육에 관한 건
- 통합지침(안)의 실무교육부분에 대하여는 정보교육TF에서 만든 기준(안)을 등록업무준비위원회와 우선 협의하여 단 일안을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이 담당위원을 선정하여 각 파트별로 추진하기로 함.
- ▷ 통합지침(안)의 실무교육부분 : 왕한성 위원, 황정복이사
- ▷ 실무교육과정개발 : 동정근, 김광현 위원
- ▷ 한옥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개발 : 장순용, 이성엽 위원
- 제3호 : 한옥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응모에 관한 건
- 한옥설계전문인력과정에 수도권교육기관으로 응모하기로 함.

▲기타사항

 리드엑스포의 세미나 요청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회원실무 교육과 혼동될 수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함.

■제7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7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소규모건축물 감리 관련 건축법령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안)으로 아래와 같이 마련하기로 하며, 국토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 의하기로 함.(방문협의 : 위원장 또는 상근부회장, 정책연 구실장)

우리협회. JSA경비대대 방문 격려금 전달



우리협회는 지난 3 월 30일 강성의 회장 과 협회 시·도건축 사회 회장단 및 관계 자 등 4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JSA경비대 대(판문점 공동경비 구역 경비대)와 도라

대대를 방문,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금 전달은 JSA경비대 대와 도라대대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강회장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수호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JSA 경비대의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며 "몸 건강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기원한다"고 치하했다.

건축사공제조합 제2회 정기총회 개최



건축사공제조합(이 사장 강성익)은 지난 3 월 26일 오후 2시 건축 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총 출자좌 32,506좌 중 17,479좌(53,7%)가 참

석(위임 16,259좌, 출석 1,220좌)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2011년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의결 됐으나, 공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 중 (주)에이원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송영석,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송기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대표이사 이의구,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노형래, (주)건축사사무소 아크바디 대표이사 김성한 등 5개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친목대회와 함께한 '제23회 정기총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성희)는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 주특별자치도 한화리조트 대연회장에서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





강석후 부회장, 이 종정 정책위원장, 고봉규 제주특별 자치도건축사회 회장, 백민석 건축 문화신문 편집국

우리협회는 2012년 어린

이날과 연계하여 '한옥과

함께하는 건축창의체험 행

사'를 오는 5월 4일부터 5

월 5일까지 1박2일간 강화

도 성산 청소년 수련원에

이번 행사는 우리협회

가 어린이에게 건축을 통

한 창의력 개발과 우리 건

축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

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

원회, 국토해양부와 공동

서 개최한다.

장 등 내빈과 회원 2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대전광역시건 축사회 정기총회 및 친목대회'를 가졌다.

정기총회 주요안건으로 '2011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2012년 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임원선출'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친목대회를 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의 환대속에 마라도방문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튿날에는 마지막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올레길, 관광 및 골프팀으로 나누어 취미별 그룹별 친목을 다졌다. 올레길 걷기를 통해 제주의 자연과 하나가 되었고 에코월드 등 관광지에서는 새로운 체험과 감동을 느꼈으나 등산과 낚시가 우천으로 취소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성희 회장은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행사에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회원의 단합과 친목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협회, 한옥과 함께하는 '건축창의 체험' 행사 개최



으로 개최한다.

참가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 100명이며,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창의성 있고 우수한 작품을 응모한학생 중에서 100명을 공정하게 선정했다.

건축계소식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 공모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는 '2012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을 공 모한다.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은 2010 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 사이 국내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준공건축물 부문'과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계획작품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참가신청은 준공건축물 부문은

오는 6월 5일까지, 계획건축물 부문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며, 작품접수는 준공건축물 부문은 6월 7~8일, 계획건축물 부문은 6월 4~5일 양일간이다.

준공건축물부문은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거부 문', '일반주거부문'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대상, 본상, 우수상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작품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대통령상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각각 수여되며, 본상 수상작 4개 작품에는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국무총리 상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우수상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상이 수여된다.

계획건축물 부문의 작품 주제는 '화이부동(和而不同)—Symbiotic Diversity'이며, 대상 1점은 상금 500만원과 국토해양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상 5점은 상금 200만원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이 수여되며 대상과 마찬가지로 해외건축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선과 입선에게는 각 100만원, 30만원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이 수여된다.

또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1인을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으로 선정, 국토해양부장관상과 트로피를 수여하 며, 한국건축문화대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대한건 축사협회가 주관, LH, 대한주택보증(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 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건축의 본질과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 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http://kaa.kira.or.kr)나 본지 515호(2012년 3월호 77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된다.

•

건축사진가 '폴리도리' 개인전



인류의 쓰라린 과 거와 삶의 자취에 주 목하는 캐나다 몬트 리얼 출신의 세계적 인 건축사진가 로버 트 폴리도리(61)가 한국에서 개인전을 연다.

폴리도리가 흥미

를 느끼는 부분은 건축물 속에 녹아 있는 영혼 포착이다. 폴리도 리는 언론을 통해 "사진을 찍는 법은 다양하지만 확실한 것은 집이나 건축물을 찍다 보면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성격이나 문화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폴리도리의 20여년간 대표작 53점을 만날 수 있으며, 제일모직의 복합문화 공간 '꼬르소꼬모'에서 4월 30일까지 열린다.

한옥문화원, '한옥으로의 초대'

한옥문화원은 전통건축인 한옥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계승 · 발전시켜 내일의 건축과 주거문화를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한옥으로의 초대(아파트를 한옥처럼, 내집을 지읍시다) 강좌를 한옥문화원 강의실 등에서 개최한다.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강의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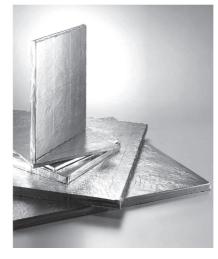
수강료는 26만원(교재비 포함, 현장강의시 교통비, 식대는 별 도)이며,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OCI 고성능 친환경 진공단열재 에너백, 건축용 시장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대규모 증설 진행

글로벌 그린에너지 기업 OCI가 지난 2010년 10월 전북 익산에서 연간 16만㎡ 규모로 상업 생산에 성공한 친환경 고성능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FS VIP, Fumed Silica Vacuum Insulation Panel) 에너백(ENERVAC)의 적극적 시장 진입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백(ENERVAC)은 열전도율 0.0045W/mK 이하로 기존 단열재 대비월등히 우수한 단열성능을 갖춘 국내 유일의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로 제품 개발 이후 소비자 needs에 발맞춰 다양한적용 기술 확보에 주력하여 왔다. 현재 냉장고 및 건축용 내,외단열 공법, 고기능 단열도어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용 단열재 적용을 위하여 차별화된 시공성 개선 및 석재, EIFS, 패널 등다양한 외벽 마감 형태별 시공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OCI는 차별화된 적용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성능 단열재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올해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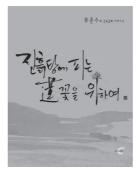
반기 안으로 연간 100만 ㎡ 규모의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현 생산량의 약 6배로, 대규모 증설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정적 제품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OCI는 이번 증설을 통해 현재 냉장고용으로 형성되고 있는 진공단열재 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 에너지 효율 관리기준이 강화되

면서 늘어나고 있는 건축용 단열재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에너백은(ENERVAC)은 2010년 국내 단열재 중 최초로 국토해 양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한 후, 2011년 올해의 녹색기술 제품 선정, 2012년 2월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로 추천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품 우수성을 공인 받고 있으며,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을 위하여 기존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신간안내

진흙탕에 피는 연꽃을 위하여 - 류춘수의 건축문화 이야기 3 류춘수 저 | 257쪽 | CA 현대건축사



신간「진흙탕에 피는 연꽃을 위하여」는「建築師 류춘수의 DRAWINGS」과함께 이공건축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建築師 류춘수의 閑談과 드로 잉展」에 맞춰 기획된 출판물이다. 이「진흙탕에 피는 연꽃을 위하여」는 1980년대 초부터 40대 중반까지 쓴 글을 편편히 모은「흐르는 세월, 변하는 장소」

와 50대 중반까지의 글을 모은 「개구리가 바다를 알려면」에 이어 60년대 중반까지의 지난 10여년의 글을 모아 펴낸 류춘수의 세 번째 건축문화이야기이다. 이번 글 모음에서도 직접그린 삽화를 곁들였으며, 최근의 글을 앞쪽에 두고 젊은 날의 생각은 뒤에 두었고 출처와 연도에 당시의 나이를 표기하였다. 저자는 건축인 뿐만아니라 특히, 일반인에게 건축과 문화 그리고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문의: CA 현대건축사, 02-455-8047



建築師 류춘수의 DRAWINGS

류춘수 저 | 304쪽 | CA 현대건축사



「建築師 류춘수의 DRAWINGS」는 고 김수근 선생의 1966년 어록 "건축가 는 도면으로 말한다"를 주제로 젊은 날 의 스케치를 모아 추억을 되새기는 드 로잉집으로, 서문에서도 밝히듯 엄선 하여 멋지게 포장한다는 생각보다는 이 기회에 기록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는 데 뜻을 두었다. 이 建築師 류춘수

의 DRAWINGS」에는 '건축 드로잉' 뿐만 아니라 누드와 인물, 국 내·외의 여행 스케치도 함께 실었다. 특히, 1964년 재수시절의 작은 수채화와 고향 문수산 축서사의 빈방 촛불 아래에서 거울보 고 그린 자화상도 기념으로 남겨 저자의 건축뿐만 아니라 손끝에 서 펼쳐지는 전통과 고향의 풍경을 느낄 수 있다.

•문의: CA 현대건축사. 02-455-8047

여행의 공간 - 어느 건축가의 은밀한 기록

우라 가즈야 저, 송수영 역 | 376쪽 | 북노마드



이 책은 일본 건축사 우라 가즈야가 전 세계 69곳의 호텔을 스케치하고 기 록한 책으로 저자는 호텔을 '낯선 곳에 서 안심할 수 있는 시공간과의 만남'이 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내게 여행이 란 호텔 탐험의 여정'이라고도 말하는 저자는 각각의 호텔에서 여행자로서의 느낌과 건축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을 다양한 스케치와 함께 풀어내고 있

다. 딱딱하지 않은 전문적인 해설과 각 호텔 게스트 룸의 배치, 타 일의 패턴까지 자세히 볼 수 있는 투시도, 가구들의 묘사와 호텔 주변의 전경 스케치 등은 각 호텔의 아름다움과 숨겨진 재미를 찾 게 해주며, 그 속에 담긴 호텔의 역사나 제대로 즐기는 방법, 재미 난 에피소드들은 더욱 이 책의 재미를 증가 시킨다. 더불어 호텔 이라는 건축물을 통해 소박하고 자연스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공간적 미학을 느낄 수 있다.

• 문의 : 북노마드. 031-955-2675

유체도시를 구축하라!

이와사부로 코소 저, 서울리다리티 역 | 424쪽 | 갈무리

이 책은 뉴욕을 '유토피아적인 기획'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중투쟁의 불멸성, 또는 그 보편성의 관점에서 도시 공간을 사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을 '유체도시'라 일컫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 절망적인 유체도시가 된 동경과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점거운동으로 희 망적으로 보여지는 유체도시 뉴욕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저자는 뉴욕의 모습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뉴욕을 단순한 계획도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시 민들의 삶을 통해 역사성이 생겨나고 문화 를 형성하며 이를 통한 커뮤니티를 구축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다 시 생각하게 한다. 더불어 구체적이면서 생동감 있는 사진들과 함 께 묘사된 뉴욕의 각 거리 모습을 볼 수 있다.

·문의: 갈무리. 02-325-4207 固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 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 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 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 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 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 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 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 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 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 랑구거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053)753 - 8980 \sim 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

$(031)247 - 6129 \sim 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 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 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 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 (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아양지연거추사회/(031)449-2698 · 부부지연 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 (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 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 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 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 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 (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

(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남부지역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건축사회/(043)543-9911 · 제천지역건축사회/ (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400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2-2084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 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 (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 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 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 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 히/(041)632-2755 · 예사지역거추사히/(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 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 (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 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 (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

$(062)365-9944 \cdot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 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 (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

■ 경상북도건축사회/

(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 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 (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 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 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 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 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 (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

(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 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 (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 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 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 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 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 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 (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OVERSEAS NEWS REVIEW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 Kim, Eunmee |

2012 선댄스 필름 페스티벌에서의 건축 역할에 대한 단상

흥미롭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건축을 사용하는 2012 Sundance 영화제의 신작들에서 나타나는 주제들 중 폐기물, 초라한 유토피아, 하락, 호텔의 인공세계는 단지 일부일 뿐이다.



Urban collage in whiteonwhite: algorithmicnoir. / Courtesy Eve Sussman / Room 237 / Directed by Rodney Ascher whiteonwhite: algorithmicnoir / Created by Eve Sussman and Rufus Corporation / Newtown Creek Digester Eggs: The Art of Human Waste / Directed by David W. Leitner / Detropia / Directed by Rachel Grady and Heide Ewing

Rodney Ascher의 delightful Room 237에서, 영화 망상가들은 Stanely Kubrick의 1980년도 호리 영화인 The Shining의 숨겨진 의미에 대한 이론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홀로코스트, 미국 원주민 몰살, 숫자 42, 그리고 날조된 아폴로 달착륙에 관한 실제 영화이지만, 그들은 그것 또한 건축적 상상이라 말한다.

작가 겸 각본가, 예술가인 Juli Kearns는 악명 높은 237호를 포함한 공간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분석하면서 가상의 Overlook Hotel을 계획한다. 살인이 일어났던 237호에는 Jack Nicholson역이 전 관리인의 유령과 대화하는(Frank Gehry가

디자인 한 것으로 알려진) 붉은 욕실과, 어린 Danny가 세발자전거로 누비던 복도가 있다. 카메라가 널찍한 로비, 화려한 무도장, 긴 복도, 산업용 규모의 주방과 미로같이 혼란스러운 외부를 가진 거대한 호텔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것은 Jack(Jack Nicholson)은 미쳐가고, 그의 아들 Danny는 호텔의 비밀스러운 어두운 과거를 파헤치고, Wendy(Shelly Duvall)가 아이를 보호하려는 것과 같은 배역들의 심경을 나타내는 도식이 된다. "Wendy는 외부에 있어서는 안 되는 홀이 외부에 있고… 문들이 없는 대신에 두꺼운 벽이 있어 놀랐다… 관객들은 붉은 홀, 초자연적 현상으로 가득한 벽, 그리고 Wendy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위협하는… 유령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호텔



에 놀라고, 경악하며 오싹해진다. 무서운 상황들에 쫓겨서 이리 저리 튀는 핀볼 기계 안의 공처럼 황급히 헤매는 그녀가 보이는 공포들로부터 달아남으로써… 우리는 출구를 찾는 그녀를 이해 한다." Kerns가 Kubrick이 만들어낸 사건논리에 대해 말한다.

영화 제작자들은 세 개의 호텔들로부터 Overlook 리조트에 대한 영감을 받아 그래프로 합성하였다. : 수정된 외부를 위한 Oregon주 Hood산의 Timberline Lodge, 내부를 위한 Yosemite의 Ahwahnee Hotel, 그리고 Stephen King이 217호에서(Timberline의 요청으로 237호로 바뀐) 소설 The Shining을 썼던 Colorado주 Estes Park에 있는 Stanley Hotel 등 이다.

한 다른 우주가 1918년 Malevich의 그림인 White on White 의 이름을 딴 whiteonwhite: algorithmicnoir에서 예술가 Eve Sussman에 의해 만들어진다. 현대미술관과 휘트니 비에 니얼에서 그의 영화가 상영되었던 Sussman은 말 그대로 지도와 열차 시간표에도 표시되지 않은 위치에, 민감한 군사, 산업, 과학 시설 때문에 여행과 주거가 제한된 "closed city"였던 구소련에서의 서스펜스 이야기에서 곤경에 빠진 미국인 주인공을 보여준다. Sussman의 의도는 소련의 조직적인 생활체계와 복고-미래지향적인 공간을 암시하는 공상과학(SF) 건축을 융합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상적인 가능성을 풀기 시작했다. 가로 막는 것이 없는 공간을 탐색했다. : 기하학, 소금, 물, 기름… 우리는 옛날 총괄계획가가 남긴 허물어져가는 콘크리트 타워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계획된 새로운 형태들을 기록했다. 영화로 설정하기 위한 지형들을 보았다. 우리의 위치를 City A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감독은 말했다. 신탁과 같은 것이고 초라한 것인 whiteonwhite는 방첨탑들, 디스크처럼 생긴 건물들, 그리고 구소련 스타일 아파트 블록들같이 열광적인 만국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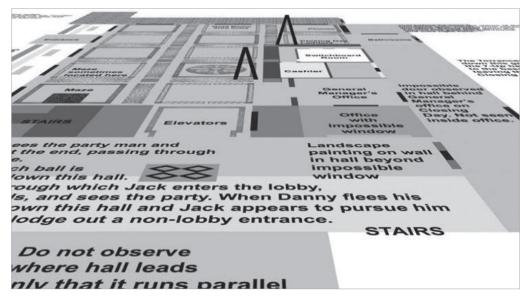
람회와 함께 카자흐스탄 서부의 Akatau에서 널리 상영됐다. 추가적인 위치들은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Astana에 있는 Norman Foster의 Bayterek 기념비, 그리고 공사 중인 SOM의 Buri Dubai이었다. 감독은 또한 그녀자신이 최근 인스톨레이션 투어를 하는 중인 모스코바 근처에 있는 Star City에 우주 비행사 Yuri Gagarin의 사무실을 다시 만들었다. 이 영화의 재미는 각 방송용 영화필름에 부착된 키워드들에 의해서 유발된 알고리즘에 의

해서 편집 되어진 것이다. 그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해보기 위한 기회가 많이 남게 되고 모든 영화 상영은 다르게 된다. 놀랍게 도, 서스펜스 장르가 스스로 무작위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 며 그리고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확실하게 해준다.

Newtown Creek Digester Eggs을 특색으로 한 혁신적인 Focus Forward 시리즈의 3분짜리 영화들: Queens의 거대한 은달걀 뒤의 건축사들과 예술가들의 스토리를 서정적으로이야기한 David W. Leitner의 The Art of Human Waste: Ennead Architects, Acconci Studio(방문객 안내소), George Trakas(자연관찰 산책), 그리고 Hervé Descottes(빛). Ennead의 Richard Olcott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그리고식물 관리자 Jim Pynn은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EPA 자격 요건을 대체하는지 자랑스럽게설명한다. Gary Hustwit(Helvetica, Objectified, Urbanized)는 뉴욕 주 북부 Delaware County에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었다. 이 시리즈의 다른 것으로는, 아카데미상 수상자인 Jessica Yu(Breathing Lessons)의 Meet Mr. Toilet인데 재활용에 관련된 주제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Rachel Grady와 Heidi Ewing의 Detropia는 디트로이트의 줄어들고 침체된 도시에 초점을 둔다. 개요에 작성된 특징들 중 많은 것—젊은 여성 블로거이며 블루스 바의 소유자인 현지 U.A.W의 회장—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단조로운 이야기를 제 안하는 그 유일한 해결책은 집중된 지역에 현재 인구를 이동시키는 것이고,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행동이다.

중심이 되는(조연) 캐릭터로써 건축을 사용한 영화들을 보는 것은 고무적이다. 몇몇 영화제작자들은 유저들로써 건조 환경 을 분석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제작자로써 그렇게 한다. 사실이 던 허구이던, 둘 다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익숙지 않은 위치에서 다른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 圖



The Shining 의 호텔 개념도 / Juli Kearns 제공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2년 2월말

(4.74-21, 4.461)																						
√구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출도 제				
건축	1	인	2	인	3인	[이상	소	. 계	1	인	2	인	3	3인	4	인	5인	이상	소	. 계	합	계
사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582	5,582	93	186	8	24	5,683	5,792	1,642	1,642	226	452	55	165	30	120	18	123	1,971	2,502	7,654	8,294
서울	874	874	23	46	2	6	899	926	831	831	128	256	36	108	14	56	12	73	1,021	1,324	1,920	2,250
부산	475	475	12	24	2	6	489	505	109	109	20	40	2	6	2	8	2	15	135	178	624	683
대구	475	475	19	38	4	12	493	525	68	68	17	34	2	6	4	16	0	0	91	124	589	649
인천	276	276	3	6	0	0	279	282	68	68	6	12	1	3	0	0	0	0	75	83	354	365
광주	200	200	1	2	0	0	201	202	39	39	8	16	2	6	2	8	0	0	51	69	252	271
대전	264	264	5	10	0	0	269	274	33	33	5	10	5	15	0	0	1	14	44	72	313	346
울산	183	183	5	10	0	0	188	193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10	219
경기	787	787	1	2	0	0	788	789	238	238	20	40	2	6	2	8	1	5	263	297	1,051	1,086
강원	179	179	2	4	0	0	181	183	27	27	2	4	0	0	1	4	0	0	30	35	211	218
충북	222	222	3	6	0	0	225	228	36	36	2	4	1	3	2	8	1	9	42	60	267	288
충남	254	254	1	2	0	0	255	256	50	50	4	8	1	3	2	8	0	0	57	69	312	325
전북	253	253	5	10	0	0	258	263	23	23	3	6	1	3	1	4	0	0	28	36	286	299
전남	207	207	1	2	0	0	208	209	19	19	2	4	0	0	0	0	1	7	22	30	230	239
경북	381	381	5	10	0	0	386	391	38	38	3	6	1	3	0	0	0	0	42	47	428	438
경남	418	418	7	14	0	0	425	432	29	29	3	6	0	0	0	0	0	0	32	35	457	467
제주	134	134	0	0	0	0	134	134	15	15	1	2	0	0	0	0	0	0	16	17	150	151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X-101			
건축사회	건축사	2급	계	비 율	준회원
합 계	8,294	10	8,304	100%	23
서 울	2,250	3	2,253	33.9%	10
부 산	683	1	684	7.9%	9
대 구	649	0	649	7.7%	0
인 천	365	0	365	3.8%	0
광 주	271	0	271	3.7%	0
대 전	346	1	347	3.7%	0
울 산	219	0	219	2,6%	0
경 기	1,086	2	1,088	12,2%	2
강 원	218	0	218	2,6%	0
충 북	288	0	288	3.0%	0
충 남	325	3	328	3.1%	0
전 북	299	0	299	3.0%	0
전 남	239	0	239	1.9%	0
경 북	438	0	438	4.6%	1
경 남	467	0	467	5.0%	1
제 주	151	0	151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 계	비고
회원수	5,792	2,502	_	8,294	
비율	69.83%	30.17%	-	100%	
사무소수	5,683	1,971	-	7,654	
비율	74.25%	25,75%	-	100%	

(





